



중학도 역시 **EBS**

세상에 없던 새로운 공부법

**EBS 중학**

뉴런



**국어 2**



무료 강의 제공



# 대단원 평가

[01~06]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와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 김소월, 「먼 후일」

나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을 아직은 ㉡노래 아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 있다.  
귀뚜라미 푸르르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지금은 매미 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곁히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러 우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 나희덕, 「귀뚜라미」

다 열무 삼십 단을 이고 /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 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흘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율목

- 기형도, 「엄마 걱정」

## 01 이와 같은 글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전달한다.
- ② 비유나 상징 등을 통해 참신하게 표현한다.
- ③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 ④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생생한 느낌을 준다.
- ⑤ 갈등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 0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 (다) 모두 화자가 시 속에 등장한다.
- ② (가), (나), (다) 모두 화자는 과거 회상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현실에 대한 긍정의 태도를, (다)는 현실에 대한 부정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외형률의 운율을, (나)는 내재율의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가)는 어른의 목소리로, (나)와 (다)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 03 (가)에서 주로 드러난 표현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 ①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 ②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
- ③ 눈물이 마른 끝에 / 또 다른 눈물방울이 맺혔다.
- ④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 찬란한 슬픔의 봄을
- 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서술형

중요

#### 04 <보기>를 참고하여 (나)의 화자를 쓰고, 그렇게 설정한 효과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시인은 스스로 화자가 되어 작품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하고 다른 인물을 내세워 자신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기도 한다.

조건

• 시의 정서를 포함하여 한 문장으로 쓸 것.

#### 0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현대적인 음악을, ㉡은 전통적인 음악을 의미한다.
- ② ㉠은 '매미'가 내는 소리를, ㉡은 '나'가 내는 소리를 의미한다.
- ③ ㉠은 힘겨운 생존의 소리를, ㉡은 감동을 주는 소리를 의미한다.
- ④ ㉠은 '매미'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을, ㉡은 '나'의 희망을 의미한다.
- ⑤ ㉠은 과거의 시간에 났던 소리를, ㉡은 다가올 미래에 내는 소리를 의미한다.

#### 06 ㉢을 통해 표현하려는 대상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
- ② 어머니를 기다리는 '나'의 슬픈 얼굴
- ③ 아픈 자식을 떠오르게 하는 시든 야채
- ④ 쓸쓸한 분위기가 도는 어두운 저녁 무렵
- ⑤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는 어머니의 발소리

#### [07~11]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썩던 껌을 아무 데나 뒀, 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너는 참 바보다.

㉡개구멍으로 속 빠져나가면 금방일 것을  
비잉 돌아 교문으로 다니는 / 너는 참 바보다.  
얼굴에 검댕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쓸데없이 꾸벅, 인사하는 / 너는 참 바보다.

호랑이 선생님이 전근 가신다고

㉣아무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찔끔거리는  
너는 참 바보다.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만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너는 참 바보다.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허풍을 떨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끄덕여 주는  
너는 참 바보다.

바보라고 불려도 화내지 않고

씩 웃어 버리고 마는 너는 / 정말 정말 바보다.

-그럼, 난 뭐냐?

㉦그런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 나는?

- 신형건 「넌 바보다」

#### 07 이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가 관찰한 '너'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나'는 '너'를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적인 말투로 표현하고 있다.
- ③ '너'에 대해 다양하게 제시하여 '너'의 인물됨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는 너는 참 바보다.'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나'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너'라는 상상의 인물로 표현하고 있다.

서술형

중요

#### 08 이 시에서 <보기>의 내용과 가장 밀접한 시행을 찾고, 그 시행에 담긴 의미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보기

이 시는 반어법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반어법은 실제와 반대되는 표현을 통해 본래의 뜻을 강조한다.

조건

• 시행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쓸 것.

09 ㉠의 함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스러운 것
- ② 작고 사소한 것
- ③ 값어치가 높은 것
- ④ 생명력이 강한 것
- ⑤ 계절의 변화를 알려 주는 것

10 ㉡을 통해 '나'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너'를 위해 살고 싶다.
- ② '너'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
- ③ '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
- ④ '나'만의 개성적인 삶을 살고 싶다.
- ⑤ '나'도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듣고 싶다.

11 ㉢~㉥ 중,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12~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쉼췌췌 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나 눈물을 흘리고 간 그달 날 저녁나절이었다.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누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뚱그레졌다. 점순이가 저의 집 봉당에 홀로 걸터앉았는데 아 이게 치마 앞에다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요렇게 암팡스레 꽤 주는 것이 아닌가.

다 가까이 와 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그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격실격실히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썹이 꼭 여우 새끼 같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 매투 때려 었었다. 닭은 폭 었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홉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 자빠졌다.

라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굴에 영, 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 “그럼, 너 이담부터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무엇을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 하고 무턱대고 대답했다.

“요담부터 또 그래 보라, 내 지꾸 못살게 굴 테니.”

“그래 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마 그리고 뒗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펍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 김유정, 「동백꽃」

12 이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는 '나'가 겪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 ② 서술자는 점순의 내면에 집중하여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서술자는 '나'의 내면 심리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 ④ 서술자는 '나'와 점순의 모든 면에 대해 전지적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 ⑤ 서술자인 '나'는 '나'의 내면세계는 드러내지만, 점순의 내면세계는 알지 못한다.

### 13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점순은 ‘나’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한다.
- ② ‘감자’는 점순이 ‘나’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 ③ ‘나’는 점순네 닭을 때려죽이고 당황하면서도 두려워한다.
- ④ 점순은 ‘나’의 씨앗밭이 괴로워하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한다.
- ⑤ ‘나’는 그동안 점순이 일 잘하고 예쁜 여자아이라고 생각해 왔다.

#### 서술형

### 14 이 글의 흐름으로 보아 (마)에 담긴 중심 내용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조건

- 장면의 분위기를 포함하여 쓸 것.
- 한 문장으로 쓸 것.

### 15 ㉠을 <보기>의 내용에 맞게 바꾸어 쓸 때, 반드시 바꾸어야 할 부분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위치한다.
- 서술자는 인물의 외면을 관찰하여 전달한다.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흘뜨고

①                      ②                      ③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④                      ⑤

#### 서술형

### 16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나)에서 ‘점순’이 우리 씨앗밭을 마음대로 때릴 수 있는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보기

그러지 않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적에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 조건

- ‘점순’을 주어로 하여 한 문장으로 쓸 것.

###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처음으로 인디언들의 세계를 만났을 때 일이 떠오른다. <중략>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 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 기대했던 나는 아주 뜻밖의 일을 경험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마주앉자마자 나는 내 소개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글을 쓰는 작가이며, 인디언 세계에 무척 관심이 많고,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잊지 않았다. 인디언들의 철학과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넌지시 내비쳤다. /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허리를 꼴꼴이 세우고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천막 안이 어슴푸레해서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건지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

**나** 훗날에야 나는 그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인 것을 알았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다.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

**다** 몇 번의 여행을 인디언들과 함께 보내면서 나는 그들로부터 두 개의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다. / 하나는 ‘( ㉡ )’였다. <중략> 그렇다. 고백하지만 나는 그들의 침묵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그들의 말에는 더없이 넘쳐 났다. 나는 이 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지 않은가.

**라** 내가 얻은 또 하나의 이름은 ‘너무 많이 물어봐’였다. 인디언들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히 나는 눈만 뜨면 질문을 퍼부어 대기 시작했다. <중략> 하지만 인디언들은 기준이 달랐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몇 가지를 묻고 답을 들어서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사람이든 장소든 대상을 깊이 이해하려면 묵묵히 오래 만나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 인디언들은 부족도 다르고 언어도 많이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인디언을 만나면 그들의 부족 언어를 묻곤 했다.  
“당신의 모국어는 뭘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답하곤 했다.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 류시화, 「나의 모국어는 침묵」

**17**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개성적인 발상과 의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필요성을 극적인 사건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 ② 사라져 가는 인디언 부족의 전통을 소재로 하여 과거의 삶의 방식을 회고하고 있다.
- ③ 언어적 표현보다 침묵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것의 소중함을 담담한 어조로 전달하고 있다.
- ④ 실제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침묵으로 인한 주변 상황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자신의 여행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제시하여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EBS

서술형

**18** (나)를 바탕으로 ㉠의 구체적인 내용을 해석하여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말’과 ‘침묵’의 특성이 각각 드러나도록 쓸 것.
- 한 문장으로 쓸 것.

**19**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너의 말만 해
- ② 너무 많이 말해
- ③ 말을 할 줄 몰라
- ④ 말을 못 알아들어
- ⑤ 제대로 된 말을 해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양반은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몸소 그 집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 양반은 가난하여 해마다 관청의 환곡(還穀)을 꾸어다 먹었다. 그 빚을 갚지 못하고 해마다 쌓여서 천 섬에 이르렀다.

**나**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딱하게 여겨 차마 가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군수도 양반의 빚을 해결할 방법은 없었다.

양반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밤낮으로 울기만 하였다. 그의 아내가 양반을 몰아붙였다.

“당신은 평소에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환곡을 갚는 데는 소용이 없구려. 쫓쫓, 양반이라니……. ㉠한 푼어치의 값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

**다** 군수는 환곡을 갚게 된 사정을 알아보려고 양반을 찾아갔다. 그런데 뜻밖에 양반이 병거지에 잠방이를 입고, 길에 엎드려 ‘소인(小人), 소인.’ 하며 자신을 낮추지 않는가? 그뿐만 아니라 양반은 감히 군수를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군수가 깜짝 놀라 양반을 붙들고 물었다.

“그대는 어째서 이런 짓을 하시오?”

양반은 더욱 벌벌 떨면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아뢰었다.

“황송하옵니다. 소인은 제 몸뚱이를 낮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환곡을 갚느라고 이미 양반을 팔았으니, 이제는 이 마을의 부자가 양반입니다. 소인이 어찌 다시 양반 행세를 하겠습니까?”

**라** 군수는 관청으로 돌아와서, 고을의 양반과 농사꾼, 장인(匠人), 장사치들까지 모조리 불러 모았다. 그리고 부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양반을 낮은 자리에 세워 두고는 다음과 같이 증서를 작성하였다.

**마** 손에 돈을 쥐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 더위도 버선을 벗지 말고, 맨상투로 밥상에 앉지 말고, 밥보다 국을 먼저 먹지 말고, 물을 후루룩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를 찧지 말고, 생과를 먹지 말고, 막걸리를 들이켜 다음 수염을 주욱 빨지 말고, 담배를 피울 때에는 불이 움푹 패도록 빨지 말아야 한다.

**바** ㉡문과의 홍패(紅牌)는 팔뚝만 하지만, 여기에 온갖 물건이 갖추어져 있으니, 그야말로 돈 자루다. 서른에야 진사가 되어 첫 벼슬을 얻더라도, 오히려 이름난 음관(蔭



官)이 되어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 수 있다. 언제나 종들이 양산을 받쳐 주므로 귀밀이 희어지고, 설령줄만 당기면 종들이 ‘예이.’ 하므로 뱃살이 처진다.

- ❶ 사 부자는 ㉠증서 내용을 듣고 있다가 혀를 내둘렀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하구먼.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부자는 머리를 흔들면서 떠나 버렸다.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 되고 싶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 박지원, 「양반전」

## 20 이 글에 드러난 시대적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분을 돈으로 사고팔기도 하였다.
- ② 신분에 따라 복장과 호칭이 달랐다.
- ③ 조상의 덕으로 벼슬에 오르는 사람도 있었다.
- ④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가 정해져 있었다.
- ⑤ 평민의 신분 상승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다.

## 21 이 글에 두드러지게 쓰인 표현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을 익숙한 대상에 빗대어 생생한 느낌을 주고 있다.
- ② 겉으로 드러난 의미와는 정반대의 뜻을 담아 의미를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표면적으로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속에 더 깊은 의미를 담아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두 대상을 제시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 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과장하거나 비꼬아서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2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양반의 무능력함에 대한 비판
- ② 양반의 세속적 태도에 대한 질책
- ③ 양반의 부당한 횡포에 대한 고발
- ④ 양반이 누리는 특권에 대한 부러움
- ⑤ 양반의 엄격한 규칙에 대한 안타까움

## 23 ㉡과 같은 표현 방법을 활용한 것은?

- ① 구름은 보랏빛 색지
- ② 얼음처럼 차가운 빗방울
- ③ 제비가 즐거운 듯 춤을 춘다.
- ④ 어둠이 훗훗훗 깃을 치며 내려온다.
- ⑤ 눈은 마치 지우개인 양 세상을 지운다.

서술형

## 24 이 글의 흐름으로 볼 때, ㉢에 담긴 내용과 그 의도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군수’의 입장이 드러나도록 쓸 것.
- 증서의 중심 내용이 드러나도록 쓸 것.

##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몇 달 뒤 왕비는 공주를 낳았어. 그런데 놀랍게도 공주는 굴뚝에서 막 빼내 온 것처럼 온몸이 새까맣지. 왕비는 공주를 품에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

“내 소원이 정말로 이루어졌구나. 나의 어여쁜 흑설 공주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왕비는 그 길로 촛불이 꺼지듯 숨을 거두고 말았단다.

나 사람들은 흑설 공주를 손가락질했지.

“임금님도 왕비님도 모두 고귀한 하얀 살갗을 지니셨는데, 어쩌서 공주님만 저렇게 온몸이 새까맣지?”

공주는 늘 고개를 꼭 숙인 채 어머니가 떠 준 망토만 가슴에 품고 다녔지. 고양이가 다니는 덩불숲 귀퉁이에 앉아 책을 읽는 공주가 보이지? 공주는 언제나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만 찾아다녔어. 책과 작은 동물들이 공주의 유일한 친구였지.

다 마침내 왕은 새 왕비를 맞아들였어. 백설 공주가 살아 온 듯 아름다운 여자였지. 게다가 왕비는 흑설 공주를 늘 데리고 다녔어.

“어쩌면 새 왕비님은 마음까지 고우실까?”

사람들은 새 왕비를 칭찬했지만, 공주는 사람들 앞에 나가는 일이 괴롭기만 했지.

**라** 왕비는 당장 거울에게 물었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흑설 공주님이에요.”  
거울의 눈에는 정말로 그 순간 흑설 공주가 가장 아름답게 보였거든.

“뭐라고? 이런 엉터리 거울 같으니!”  
화가 난 왕비는 의자를 집어 들어 거울을 내리쳤지만 거울은 멀쩡했지. 그야 마법의 거울이니까.

**마** 난쟁이들은 흑설 공주를 기쁘게 맞았어. 그리고 집을 나설 때마다 몇 번이고 주의를 주었지.  
“공주님, 아무도 문을 열어 주면 안 돼요. 새 왕비가 독 사과를 들고 올지도 몰라요.”  
“응, 알았어. 다들 조심해서 다녀와!”

**바** 하루는 “헌책 사려!” 하는 소리에 공주가 열린 창밖을 내다보니 책을 한가득 진 영감이 서 있는 거야. 공주는 마음을 놓고 열린 문을 열었지. 그런데 그게 바로 변장한 왕비였어. 왕비는 재빨리 책 한 권을 펼쳐 보였지.

“이런 산속에선 구경도 할 수 없는 재미난 책이라우.”  
공주는 너무 기뻐 열린 책을 읽기 시작했어. 공주가 펼친 면을 금세 다 읽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 다음 장으로 넘기자 왕비가 침을 ‘꼴깍!’ 삼켰지. 그 펼쳐진 면에는 독이 발라져 있었거든! 이제 공주가 독이 묻은 저 손가락을 다시 입속에 넣기만 하면 일이 끝나잖아? 아니나 다를까, 공주는 다음 장을 넘기려고 다시 손가락에 침을 묻히다 말고 폴짝 쓰러지고 말았지.

**사** 흑설 공주가 돌아오자 왕궁은 발칵 뒤집어졌어. 왕비가 한 사악한 짓도 다 드러났지. 아름답던 왕비의 모습은 이제 징그러운 껍질처럼 여겨졌어. 왕은 불같이 화를 내며 왕비를 감옥에 가두었다.

정원사와 공주의 결혼 축제는 사흘 낮 사흘 밤 동안 벌어졌어. 검게 빛나는 공주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여자들은 모두 얼굴에다 숯검정을 칠하기 시작했단다. 그러다 모두들 깨달았지.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얼마나 쉽게 바뀌는 것인지. 또한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 이경혜, 「그림 동화로 읽는 흑설 공주」

**25** 이와 같은 글의 재구성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작의 작가에 대한 독자의 평가 활동이다.
- ② 원작의 주제를 독자가 재확인하는 활동이다.
- ③ 원작에 대한 독자의 능동적인 감상 활동이다.
- ④ 원작에 대한 독자와 독자 사이의 교류 활동이다.
- ⑤ 원작에 대한 감상의 방향을 규정해 주는 활동이다.

**26** **중요** <보기>는 이 글의 원작 「백설 공주」의 줄거리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이 글을 창작하기 위한 메모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백설 공주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백설 공주라는 거울의 말에 새 왕비는 백설 공주를 왕궁에서 쫓아내 죽이고자 하였다. 겨우 살아난 공주는 숲속의 일곱 난쟁이의 집에서 살았는데 새 왕비가 이를 알고 노파로 변신하여 공주를 찾아갔다. 공주는 왕비가 건넨 독 사과를 먹고 쓰러졌는데, 이웃 나라의 왕자가 나타나 공주에게 키스를 하자 살아났다. 그 후 그간의 사실이 밝혀져 새 왕비는 벌을 받고 공주는 왕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 ① 시대적 상황을 현대로 바꿈.
- ② 더 많은 수의 인물을 등장시킴.
- ③ 사건의 공간을 여러 곳으로 설정함.
- ④ 주인공의 성격을 악인으로 설정하여 사건을 구성함.
- ⑤ 내용을 개성적으로 해석하여 주제를 새롭게 제시함.

**27** **서술형** <보기>는 이 글의 결말이다. <보기>로 보아 이 글에서 ‘거울’의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보기 ▶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니?” /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면 거울은 우물쭈물하다 대답했지.  
“모르겠어요. 저마다 다들 나름대로 아름다우니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 조건 ▶

- 작품의 주제가 드러나도록 쓸 것.
- 한 문장으로 쓸 것.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놀부는 부모님께 배운 것을 바탕으로 열심히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어요. ‘놀부네’ 식당은 하루하루 더 번창했지요. 그래도 놀부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새벽부터 식당에 나와 청소며 장사 준비까지,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이런 놀부와 달리,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만 자란 흥부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처럼 형에게 용돈을 타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일쑤였지요.

**나** 이 말을 들은 흥부는 깜짝 놀랐어요.

“형,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용돈을 벌어? 부모님 돌아가실 때 형이 부모님께 약속했잖아? 식당을 이어받아 열심히 살면서 나를 돌봐 준다고, 돈 좀 벌고 나니, 돈에 눈이 멀어 이젠 동생을 못 본 체하겠다는 거야?”  
 놀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흥부에게 더 모질게 말했어요.  
 “난 해 줄 만큼 해 줬어. 도대체 언제까지 나한테 용돈 받아 살아갈 거니?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가도록 해.”

**다** 배신감을 느낀 흥부는 화가 나서 형에게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들을 퍼붓고는 집을 뛰쳐나왔어요.

‘꼭 형보다 성공할 거야.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나 봐라. 형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모른 척할 거야.’ / 흥부는 한동안 친구 집에 머물며 일자리를 구하려 다녔지만 아무 일도 해 본 적 없는 흥부가 직장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라** 흥부는 부모님의 정성이 담겨 있던 ‘놀부네’ 식당의 음식을 떠올리며 새 메뉴를 개발해 냈어요. 그 덕에 막강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1등을 차지했지요. 상을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흥부 앞에 형 놀부가 웃음 띤 얼굴로 나타났어요. / 식당 사장님이 놀부를 반기며 말했어요.

“흥부야, 사실은 오늘이 있기까지 형이 너를 나에게 부탁했단다. 이 식당도 너를 위해 네 형이 어렵게 마련해 둔 거야.”

**마** 형의 진심을 안 흥부는 더 열심히 식당 일을 했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놀부네’ 식당과 함께, 요리사가 된 흥부가 운영하는 ‘흥부네’ 식당은 ‘양심적인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 형제의 우애로 만든 맛있는 음식’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아주 유명해졌답니다. 놀부와 흥부는 부모님과 손님들에게 받은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 「새로 쓰는 흥부전」

## 28 **중요** 이 글에 드러난 작품의 재구성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갈래를 바꾸어 작품 분위기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 ② 원작과 동일한 사건을 전달 매체를 바꾸어 참신한 느낌을 부여하고 있다.
- ③ 등장인물의 성격을 정반대로 바꾸어 원작과 상반된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④ 서술 시점을 1인칭 시점으로 바꾸어 인물의 심리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⑤ 시간적 배경을 현대에 맞게 재구성하여 현대의 독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 29 이 글의 주제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한자 성어는?

- ① 수어지교(水魚之交)      ② 수족지애(手足之愛)
- ③ 동고동락(同苦同樂)      ④ 대기만성(大器晚成)
- ⑤ 십시일반(十匙一飯)

## 30 **서술형** <보기>는 (나)를 희곡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지시문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보기** ▶

흥부: (깜짝 놀라며) 형,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용돈을 벌어? 부모님 돌아가실 때 형이 부모님께 약속했잖아? 식당을 이어받아 열심히 살면서 나를 돌봐 준다고, 돈 좀 벌고 나니, 돈에 눈이 멀어 이젠 동생을 못 본 체하겠다는 거야?

놀부: ( ) 난 해 줄 만큼 해 줬어.  
 도대체 언제까지 나한테 용돈 받아 살아갈 거니?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가도록 해.

◀ **조건** ▶

- 글의 내용과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 쓸 것.

## 수행 평가 따라잡기

### ① 다음은 시의 화자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며 나눈 대화이다. ㉠~㉣에 들어갈 말을 써 보자.

울지 마  
엄마 돌아가신 지  
언제인데  
너처럼 많이 우는 애는  
처음 봤다  
해마다 가을날  
밤이 깊으면  
갈맷잎 사이로 허영계  
보름달 뜨면  
내가 대신 이렇게  
울고 있잖아

— 정호승, 「귀뚜라미에게 받은 짧은 편지」

한수: 돌아가신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니 참 슬퍼.

지해: 그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인 ( ㉠ )  
을/를 화자로 설정한 것이 참신해.

명식: 맞아. 가을밤에 갈맷잎 사이로 뜬 보  
름달을 떠올리면 ( ㉡ ) 분  
위기가 잘 느껴져.

민서: 그래. 울고 있는 아이를 대신하여 울고  
있다는 화자의 말이 화자의 ( ㉢ )  
마음을 잘 보여 주고 있어.

### ②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  
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향차 망아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그럼 혼자 하지 떼루 하디?” /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 또는, /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  
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  
[A] 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즈 집계를 할끔할끔 돌아보더니 행주치마 속으로 꺾  
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 김유정, 「동백꽃」

#### (1) 다음은 [A]의 서술자를 ‘나’에서 ‘점순이’로 바꾸어 서술한 것이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써 보자.

나는 남에게 들킬까 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다. 그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 자꾸만 웃음이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_\_\_\_\_

\_\_\_\_\_

#### (2) 서술자를 (1)과 같이 바꾸었을 때 달라지는 점을 이야기해 보자.

## 풀어 주기

① 시의 제목과 시 속의 상  
황을 통해 시의 화자를  
파악하고, 시 속에 드러나  
는 화자의 행동과 특징을  
통해 시의 분위기를 파악  
해 본다. 그리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  
해 화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본다.

예시 답안 ㉠: ‘나(귀뚜라  
미)’

㉡: 쓸쓸하고 애상적인

㉢: 우는 아이를 위로하고자  
하는

② (1) 서술자인 ‘나’를 여자  
아이인 ‘점순이’로 바꾸었  
을 때 호칭이나 심리 표  
현 등에서 어떤 서술상의  
차이가 생길지 생각해 본  
다.

예시 답안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  
보았다. 나는 그를 위해 준비  
한 선물을 계속 만지작거렸  
다. 엄마에게 들킬까 봐 집계  
를 돌아보며 행주치마 속에  
감춰 온 감자 세 개를 꺼내  
그의 턱 밑으로 불쑥 내밀었  
다. 다행히 감자는 아직 따듯  
했고 그 아이에게 이 맛있는  
감자를 줄 수 있어서 나는  
행복했다.

(2) ‘나’와 점순이 각각 어  
떤 특성을 지닌 인물인지  
비교해 보고, 동일한 사  
건을 점순의 관점에서 바  
라보았을 때 달라지는 점  
을 생각해 본다.

예시 답안 이 소설의 ‘나’  
는 점순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함으로써 독자의 웃음을  
유발했지만, 서술자를 점순  
이로 바꾸면 점순의 속마음  
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재미  
가 다소 떨어진다.

## 수행 평가 따라잡기

- ① (가)는 조선 시대 윤선도의 시조 「오우가(五友歌)」이고, (나)는 이 작품을 패러디한 작품이다. 두 작품을 비교하며 감상한 후, 고전 작품이 현대에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런지 설명해 보자.

(가)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東山)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나) 내 벗이 몇인가 하니 교과서와 색볼펜이라.  
형광펜으로 별표 그리니 그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세 가지뿐 또 더하여 무엇하리.

- ② 다음은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라는 속담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바꾸어 써 보는 모둠 활동에서 한 모둠원이 제시한 의견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며, 제시된 의견의 타당성을 평가해 보자.

모둠원: 저는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현대는 소셜 미디어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 참여, 공유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여러 차례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예의를 갖추어 말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속담을 ( )와/과 같이 바꾸어 보았습니다.

(1) 모둠원의 논리에 근거하여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2) 모둠원이 제시한 근거 중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 그 이유를 말해 보자.

## 끝어 주기

- ① 고전 문학을 오늘날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게 바꾸어 표현하는 것은 고전 작품의 창조적 계승이라 할 수 있다. 원작과 재구성한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한 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바뀐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파악해 본다.

**예시 답안** (가)의 다섯 자연물인 수석송죽월(水石松竹月)이 (나)에서는 공부할 때 필요한 교과서, 색볼펜, 형광펜으로 바뀌었다. (나)에서도 사람이 아닌 사물을 마치 친구처럼 여기며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에 담긴 작가의 정서, 즉 사물(자연)에 대한 애정관이 오늘날에도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1) ‘속담’은 오랜 역사적 생활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이다. 이러한 속담은 시대적 변화와 가치관에 따라 재해석될 여지가 있다. 소셜 미디어의 시대에 맞게 바꾸어 본다.

**예시 답안**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도 할수록 고와진다.

(2) 소셜 미디어의 단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고, 제시한 의견의 근거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 본다.

**예시 답안** 소셜 미디어에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어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소셜 미디어상의 언어 예절은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횟수에 상관없이 서로가 배우고 지켜야 할 규범이다.

## 수행 평가 따라잡기

### ① 다음 공익 광고에 사용한 표현 방법을 알아보자.



(1) 이 공익 광고의 **아이의 입을 막는 대화?**에 사용된 표현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자.

(2) 이 광고 문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써 보자.

## 풀어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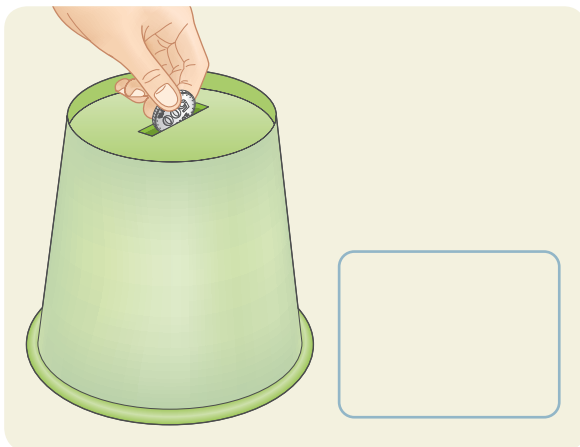
① (1) 공익 광고는 인상적인 사진이나 문구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주제를 전달해야 하므로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 제시된 공익 광고의 핵심 문구에서 '입을 막는'과 '대화'의 의미 관계를 생각해 본 후, 이와 같은 관계를 이용한 표현 방법이 무엇인지 말해 본다.

**예시 답안**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2) '입을 막는 대화'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광고의 의도를 파악한다.

**예시 답안** 아이가 말할 틈을 주지 않고 강요하는 일방적인 교육에 대한 비판이다.

### ② 다음 광고를 보고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공익 광고를 만들어 보자.



(1) 이 그림을 활용하여 어떤 주제를 전달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자.

(2) 역설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문구를 만들어 이 그림을 활용한 공익 광고를 완성해 보자.

② (1) 1회용 종이컵과 저금통을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 등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예시 답안** 일회용품 줄이기를 홍보하는 공익 광고이다.

(2)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광고 문구를 만들어 본다.

**예시 답안** 줄이는 것이 늘리는 것입니다.

# 단원 평가

[01~06]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있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있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있었노라'

오늘도 어제와도 아니 잊고

㉠ 먼 훗날 그때에 '있었노라'

- 김소월, 「먼 후일」

나 씹던 껌을 아무 데나 댄, 뺄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너는 참 바보다.  
개구멍으로 쏙 빠져나가면 금방일 것을  
비잉 돌아 교문으로 다니는  
너는 참 바보다.  
얼굴에 검댕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쓸데없이 꾸벅, 인사하는  
너는 참 바보다.  
호랑이 선생님이 전근 가신다고  
아무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찔끔거리는  
너는 참 바보다.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너는 참 바보다.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허풍을 떨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끄덕여 주는  
너는 참 바보다.  
바보라고 불러도 화내지 않고  
씩 웃어 버리고 마는 너는  
정말 정말 바보다.

-그럼, 난 뭐냐?

그런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네 뒤를 줄줄 따라다니는 / 나는?

- 신형건, 「넌 바보다」

01 이와 같은 글에서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가는 독자와의 공감을 위해 독자의 수준에 맞는 표현 방법을 활용한다.
- ② 작가는 자신의 가치관을 전달하기 위해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을 활용한다.
- ③ 작가는 주제를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 지시적, 사전적 의미의 어휘를 활용한다.
- ④ 작가는 일상 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표현한다.
- ⑤ 작가는 독자에게 친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 일상적이고 익숙한 표현을 활용한다.

02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을 고려할 때, 두 작품의 감상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모순된 표현에 담겨 있는 심오한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 ② 표면적 의미보다 내면적 의미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 ③ 의문형 문장 표현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 ④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전하는 추상적 관념을 파악해야 한다.
- ⑤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시의 중심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03 (가)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고 있다.
- ②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 ③ 각 행에서 동일한 음보를 반복하고 있다.
- ④ 각 행에서 글자의 수를 일정하게 반복하고 있다.
- ⑤ 각 행의 첫 부분에 동일한 소리를 반복하고 있다.



#### 04 (가)에서 화자가 말하고 있는 바로 적절한 것은?

- ① 당신을 위한 희생과 헌신
- ② 당신에 대한 원망과 미움
- ③ 당신과의 추억의 아름다움
- ④ 당신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 ⑤ 당신을 잊으려는 끝없는 노력

#### 05 (나)로 보아, ‘너’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위생적이고 건강하게 사는 삶
- ② 누구에게나 정을 베풀 줄 아는 삶
- ③ 규칙을 지키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삶
- ④ 상대에게 공감해 주고 교감을 나누는 삶
- ⑤ 사소한 것에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는 삶

#### 06 서술형 ⑦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   |
|--------|---|
| 표면적 의미 | ㉠ |
| 이면적 의미 | ㉡ |

◀ 조건 ▶

- 각각 한 문장으로 쓸 것.

#### [07~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마주앉자마자 나는 내 소개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글을 쓰는 작가이며, 인디언 세계에 무척 관심이 많고,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잊지 않았다. 인디언들의 철학과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넌지시 내비쳤다. /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허리를 꼴꼴이 세우고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천막 안이 어슴푸레해서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건지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

나 훗날에야 나는 그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인 것을 알았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다.

다 그 후 미국에서 돌아와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 흉내를 내고는 했다. 상대방의 존재를 느낀답시고 입을 다물고 오 분이고 십 분이고 앉아 있었다. 그 결과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다.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라 몇 번의 여행을 인디언들과 함께 보내면서 나는 그들로부터 두 개의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다. / 하나는 ‘너무 많이 말해’였다. <중략> 그렇다. ㉢고백하지만 나는 그들의 침묵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그들의 말에는 더없이 넘쳐났다. 나는 이 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지 않은가.

내가 얻은 또 하나의 이름은 ‘너무 많이 물어봐’였다. 인디언들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히 ㉣나는 눈만 뜨면 질문을 퍼부어 대기 시작했다. <중략> 하지만 인디언들은 기준이 달랐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몇 가지를 묻고 답을 들어서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사람이든 장소든 ( ㉤ ) 은/는 것이었다.

마 인디언들은 부족도 다르고 언어도 많이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인디언을 만나면 그들의 부족 언어를 묻곤 했다.

“당신의 모국어는 뭘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답하곤 했다.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 류시화, 「나의 모국어는 침묵」

#### 07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주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② 글쓴이의 사실적 경험과 그에 따른 깨달음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 ③ 현실 상황을 바탕으로 상상 속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전개하고 있다.
- ④ 시대적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 ⑤ 하나의 쟁점에 대한 대립된 입장을 제시하여 깊이 있는 생각을 유도하고 있다.

**08** 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말 속에 뼈가 있다.
- ② 말이 은이라면 침묵은 금이다.
- ③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 ④ 입은 뻐뻐어도 말은 바로 해라.
- ⑤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09** 이 글의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 ② 질문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려 한다.
- ③ 평화로움에서 오는 침묵의 가치를 알게 된다.
- ④ 인디언들을 통해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 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EBS

★중요

**10** ㉠~㉣에 드러난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하나의 대상에 대해 여러 가지 내용을 나열하고 있다.
- ② ㉡: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③ ㉢: 서로 대조되는 어구를 통해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실제 상황보다 더 부풀려서 표현하고 있다.
- ⑤ ㉣: 모순된 표현을 통해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서술형

**11** 이 글로 보아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이 글의 '인디언'의 가치관을 반영할 것.
- 한 문장으로 쓸 것.

**[12~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양반은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몸소 그 집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 양반은 가난하여 해마다 관청의 환곡(還穀)을 꾸어다 먹었다. 그 빚을 갚지 못하고 해마다 쌓여서 천 섬에 이르렀다.

**나** 부자는 곧 양반을 찾아가 환곡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청하였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승낙하였다. 부자는 즉시 관청에 가서 양반 대신 환곡을 갚았다.

**다** 군수는 관청으로 돌아와서, 고을의 양반과 농사꾼, 장인(匠人), 장사치들까지 모조리 불러 모았다. 그리고 부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양반을 낮은 자리에 세워 두고는 다음과 같이 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손에 돈을 쥐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 더위도 버선을 벗지 말고, 맨상투로 밥상에 앉지 말고, 밥보다 국을 먼저 먹지 말고, 물을 후루룩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를 찧지 말고, 생파를 먹지 말고, 막걸리를 들이켠 다음 수염을 주욱 빨지 말고, 담배를 피울 때에는 불이 움푹 패도록 빨지 말아야 한다. <중략> 추위도 화로에 걸불을 쬌지 말고, 말할 때 입에서 침을 튀기지 말고, 소 잡는 일을 하지 말고, 돈으로 노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마**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 넷으로 구분하였다. 네 가지 백성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선비이니, 이는 곧 양반이다. 양반의 이익은 막대하다.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는다. 글만 대충 읽어도 크게 되면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작아도 진사(進士)가 된다.

문과의 홍패(紅牌)는 팔뚝만 하지만, 여기에 온갖 물건이 갖추어져 있으니, 그야말로 돈 자루다. 서른에야 진사가 되어 첫 벼슬을 얻더라도, 오히려 이름난 음관(蔭官)이 되어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 수 있다. 언제나 종들이 양산을 받쳐 주므로 귀밀이 희어지고, 설령줄만 당기면 종들이 '예이.' 하므로 뱃살이 처진다. <중략>

강제로 이웃의 소를 끌어들 먼저 자기 땅을 갈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 먼저 자기 논을 갈고, 누가 감히 나에게 대들겠느냐?

**바** 부자는 증서 내용을 듣고 있다가 혀를 내둘렀다.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하구먼. 나를 ㉠도 독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부자는 머리를 흔들면서 떠나 버렸다. 그러고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 되고 싶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 박지원 「양반전」



# EBS 중학 뉴런

| 국어 2 |

미니북

나는 \*북관(北關)에 혼자 앉아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醫員)을 보이었다  
 의원은 \*여래(如來) 같은 상을 하고 \*관공(關公)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 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 썬 아느냐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莫逆之間)이라며 수염을 쓴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 다시 넌즈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 북관: '함경도'의 다른 이름.

\* 여래: '부처'를 달리 이르는 말.

\* 관공: 중국 소설 「삼국지」에 등장하는 '관우'를 이르는 말.

\* 막역지간: 허물이 없는 아주 친한 사이를 이르는 말.

##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서사적, 회고적   |
| 화자 | 고향을 떠나 타지에 와 있는 '나'                                                                                                                                                   | 제재 | 북관에서 만난 의원 |
| 주제 | 아버지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체적인 사건과 인물간의 대화 형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함.</li> <li>비유를 활용한 묘사로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을 전달함.</li> <li>축약적 심상을 사용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킴.</li> </ul>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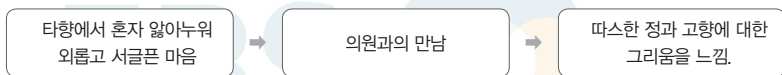


## ■ 시의 화자의 처지와 정서

이 시를 쓴 시인 백석은 평안북도 정주 출생이다.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에서 기 생활을 하다가 함경도로 가서 영어교사로 재직하였다. 이후 경성, 서울, 만주, 신의주 등을 떠돌며 많은 시를 썼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시는 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고 볼 수 있으며, 시의 화자인 ‘나’ 또한 시인 자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                                                                                               |
|--------|-----------------------------------------------------------------------------------------------|
| 화자의 처지 | 고향인 평안도 정주를 떠나 함경도에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음.<br>• 병에 걸려 의원을 찾아가.<br>• 의원이 아버지로 섬기는 분(또는 아버지)의 친구임을 알게 됨. |
| 화자의 정서 | 의원의 손길에서 따스함을 느끼면서, 아버지와 고향, 고향 사람들을 생각함.                                                     |

## ■ 시의 화자의 정서 변화 과정



## ■ ‘의원’의 외모 묘사

이 시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의원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다. 화자는 의원에 대해 여래 같으며, 관공 같기도 하고, 신선 같은 면모도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인자하고 너그러우면서도 화자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해 줄 능력을 지닌 절대적인 존재로 의원을 묘사하고 있다.

## 서술형 체크 ✓

### 1 이 시의 화자의 현재 처지를 쓰시오.

답 타향에서 외롭게 생활하면서 병이 들었다.

해설 화자의 고향은 평안북도 정주인데 지금은 북관(함경도)에 있다. ‘혼자 앓아누워서’라는 표현에서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알 수 있다.

### 2 화자에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매개체를 쓰시오.

답 의원의 따스하고 부드러운 손길

해설 화자는 자신의 고향 사람을 알고 있다는 의원의 손길에서 따스함을 느끼면서 아버지와 고향, 고향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있다.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 있다.  
귀뚜르르 뚜르르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지금은 매미 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곁히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밭길에 눌러 우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 타전: 전보나 무전을 칭.

##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감각적, 의지적 |
| 화자 | ‘나(여름날의 귀뚜라미)’                                                                                                                                                                                                                                  | 제재 | 귀뚜라미의 울음 |
| 주제 |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고 싶은 소망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곤충인 귀뚜라미를 시의 화자로 내세워 시인의 소망을 우회적으로 전달함.</li> <li>•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를 통해 화자의 처지 및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li> <li>•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을 사용해 시적 상황을 전달함.</li> <li>• 2, 3연을 의문형으로 마무리하면서 화자의 소망을 제시하고 시적 여운을 줌.</li> </ul> |    |          |

## 100점 특강

## ■ 시의 화자

| 시의 화자         | 특징                                                                                                                                                                                                |
|---------------|---------------------------------------------------------------------------------------------------------------------------------------------------------------------------------------------------|
| ‘나’<br>(귀뚜라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인이 직접 화자로 등장하지 않고 곤충인 귀뚜라미를 ‘나’로 내세움.</li> <li>• 귀뚜라미를 통해 시인의 처지와 정서, 소망 등을 드러냄.</li> <li>• 가을을 기다리며 여름을 참고 견디는 귀뚜라미의 특성이 시의 주제를 드러내기에 효과적임.</li> </ul> |

이 시에서 ‘귀뚜라미’는 시인의 정서와 소망을 대신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귀뚜라미의 소리는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시’라고 할 수 있다. 여름날 귀뚜라미 소리가 울음에 그치고 자신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에 불과한 것처럼, 현재의 시인은 본인이 감동 없는 시만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귀뚜라미가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부를 가을을 기다리듯이,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시를 쓸 날을 소망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 ■ ‘귀뚜라미’의 현재와 미래

|         | 현재                                | 미래                   |
|---------|-----------------------------------|----------------------|
| 계절      | 여름                                | 가을                   |
| 계절의 특성  | 매미의 계절                            | 귀뚜라미의 계절             |
| 귀뚜라미 처지 | 고달픈 현실을 견딤.                       | 울림을 주는 노래를 부름.       |
| 귀뚜라미 소리 | 울음, 타전 소리<br>(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함.) | 노래<br>(누군가에게 감동을 줌.) |

## 서술형 체크 ✓

1 이 시에서 ‘노래’와 대조적인 의미로 쓰인 시어 두 개를 찾아 쓰시오.

답 울음, 타전 소리

해설 ‘노래’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소리이지만, ‘울음’과 ‘타전 소리’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만 하는 울림이 없는 소리이다.

2 이 시의 화자가 소망하는 삶을 쓰시오.

답 누군가의 가슴(삶)에 울림을 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해설 이 시의 화자인 ‘귀뚜라미’가 소망하는 삶은 2연과 3연의 마지막 행에 의문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  
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 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 핵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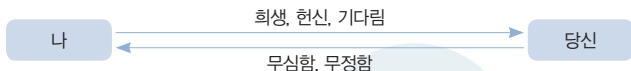
|    |                                                                                                                                                                                                                                          |    |          |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상징적, 명상적 |
| 화자 | ‘당신’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나’                                                                                                                                                                                                                      | 제재 | 나룻배와 행인  |
| 주제 | ‘당신’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과 간절한 기다림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와 ‘당신’을 ‘나룻배’와 ‘행인’에 비유하며 사랑을 전개함.</li> <li>• ‘나’의 태도가 ‘당신’의 태도와 대조를 이루며 강조됨.</li> <li>• 수미 상관의 방법을 사용하고, ‘-ㅁ니다’와 같은 종결형을 반복하며 운율을 형성함.</li> <li>• 쉬운 우리말과 경어체를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냄.</li> </ul> |    |          |

## ■ 시의 화자와 시적 대상

|       | 인물                            | 비유적 표현 |
|-------|-------------------------------|--------|
| 화자    |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기다리는 '나' | 나룻배    |
| 시적 대상 | 이기적이며 무심한 '당신'                | 행인     |

## ■ '나'와 '당신'의 태도

이 시에서 '나'와 '당신'의 태도는 대조적으로 드러난다. '나'는 당신에게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당신'은 '나'에게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 소재의 상징적 의미

|        |                              |
|--------|------------------------------|
| 나룻배    | '나'의 희생적 사랑과 간절한 기다림을 드러냄.   |
| 흙발     | '나'에 대한 '당신'의 무심함을 드러냄.      |
| 바람, 눈비 | '당신'을 기다리며 '나'가 겪어야 할 시련과 고난 |
| 밤, 낮   | '당신'에 대한 '나'의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    |

## 서술형 체크 ✓

### 1 '당신'과 '나'의 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십시오.

답 '나'는 '당신'에게 희생적,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당신'은 '나'에게 무심한 태도를 보인다.

해설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고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지만,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가고 바람과 눈비를 맞으면서도 '당신'을 기다린다.

### 2 다시 만날 것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행을 찾아 쓰시오.

답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해설 3연에는 당신이 돌아올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이 드러나 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落花)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관조적, 의지적 |
| 화자 | 낙화를 통해 이별의 의미를 발견하는 '나'                                                                                                                              | 제재 | 낙화       |
| 주제 | 이별을 통한 내적 성숙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 현상으로부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함.</li> <li>• 이별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극복의 과정을 다룸.</li> <li>•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강조함.</li> </ul> |    |          |



## 100점 특강

## ■ 시어의 함축적 의미

|        |   |            |
|--------|---|------------|
| 꽃      | ▶ | 사랑, 청춘, 젊음 |
| 낙화     | ▶ | 이별, 죽음     |
| 녹음과 열매 | ▶ | 성장, 성숙     |

## ■ 자연 현상과 인간사의 관계



## ■ 시에 쓰인 표현 방법과 효과

|                |     |                                     |
|----------------|-----|-------------------------------------|
|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 영탄법 | 적절한 시기의 이별을 아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강조함.       |
|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 역설법 | 모순된 표현을 통해 헤어짐은 성숙한 만남을 위한 것임을 드러냄. |
|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 의인법 |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의인화하여 이별의 모습을 형상화함.    |
| 하룻하룻 꽃잎이 지는    | 의태법 | 꽃잎이 가볍게 흩날리는 모습을 의태어를 사용하여 나타냄.     |
| 샘터에 물 고이듯      | 직유법 | 이별로 인한 슬픔과 그 아픔으로 인해 성숙해지는 영혼을 표현함. |

## 서술형 체크 ✓

## 1 이 시에 쓰인 시어 ‘낙화’의 사전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를 쓰시오.

답 사전적 의미: 꽃이 떨어짐  
 함축적 의미: 이별, 결별

해설 이 시에서는 꽃이 피었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인간사에서의 만남이나 헤어짐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2 이 시에서 역설적 표현에 해당하는 시구를 찾아 쓰시오.

답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해설 ‘결별’이라는 부정적 상황을 ‘축복’이라는 긍정적 시어로 모순되게 표현하여 낙화를 통해 열매를 얻음, 즉 이별을 통해 내적인 성숙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씹던 껌을 아무데나 뱉, 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너는 참 바보다.  
 개구멍으로 쓱 빠져나가면 금방일 것을  
 비잉 돌아 교문으로 다니는 / 너는 참 바보다.  
 얼굴에 검댕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쓸데없이 꾸벅, 인사하는 / 너는 참 바보다.  
 호랑이 선생님이 전근 가신다고  
 아무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찔끔거리는 / 너는 참 바보다.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 너는 참 바보다.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허풍을 떨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끄덕여 주는 / 너는 참 바보다.  
 바보라고 불려도 화내지 않고  
 씨익 웃어 버리고 마는 너는 / 정말 정말 바보다.

- 그럼 난 뭐냐?  
 그런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너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반어적, 예찬적        |
| 화자 | 바보 같은 '너'를 좋아하는 '나'                                                                                                                      | 제재 | 착하고 따뜻한 '너(친구)' |
| 주제 | 착하고 따뜻한 '너'를 좋아함.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조함.</li> <li>같거나 비슷한 문장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함.</li> <li>질문의 형식으로 화자의 마음을 표현함.</li> </ul> |    |                 |

## 100점 특강

## ■ 시적 대상과 화자의 태도

| 시적 대상(1연)       | 화자의 태도(2연)        |
|-----------------|-------------------|
|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너' | '나'는 그런 '너'를 좋아함. |

## ■ '너는 참 바보다.'의 의미와 표현상 특징

| 표면적 의미         | 이면적 의미                    |
|----------------|---------------------------|
| '너'는 어리석은 바보다. | '너'는 품성이 바르고 마음이 따뜻한 친구다. |

'너'를 '바보'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의 바른 품성과 따뜻하고 넓은 마음을 말함으로써 '너'의 바보 같지 않은 면을 반어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 ■ '너'의 인물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칙을 잘 지킴.</li> <li>• 예의 바름.</li> <li>• 마음이 따뜻함.</li> <li>• 사소한 것을 소중히 여김.</li> <li>• 너그러움.</li> </ul> | 순진하면서도 바르고 마음이 따뜻한 친구 |
|------------------------------------------------------------------------------------------------------------------------------------------------|-----------------------|

## 서술형 체크 ✓

## 1 이 시에서 '너'는 어떤 사람인지 쓰시오.

답 품성이 바르고 다정다감한 친구이다.

해설 이 시에서 '너'는 규칙을 잘 지키면서 어려운 이웃과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 마음이 따뜻한 친구이다.

## 2 이 시에서 반어적 표현이 쓰인 구절을 쓰시오.

답 너는 참 바보다.

해설 이 시에서 화자인 '나'는 '너'를 바보라고 말하면서도 '너'의 착하고 따뜻한 점을 좋아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너는 참 바보다.'는 반어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은행나무 열매에서 구린내가 난다  
주의해 주세요 구린내가 향기롭다

밤톨이 여물면서 밤송이가 따가워진다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너그럽다

복어알을 먹으면 죽는다  
복어의 독이 복어의 사랑이다

자식을 낳고 술을 끊은 친구가 있다  
친구의 독한 마음이 아름답다



##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감각적, 역설적  |
| 화자 | 겉으로 드러나지 않음.                                                                                                                                                                                     | 제재 | 친구의 독한 마음 |
| 주제 | 자식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는 친구의 아름다운 마음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물의 외면적인 속성에서 역설적인 의미를 읽어 낸.</li> <li>• 후각적·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li> <li>• 여러 대상들의 속성과 대상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유사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구조적 안정감과 통일감을 줌.</li> </ul> |    |           |

## 100점 특강

## ■ 소재에 대한 개성적 발상

| 소재          | 일반적 인식    | 화자의 개성적 발상             |
|-------------|-----------|------------------------|
| 은행나무 열매의 냄새 | 구린내가 난다.  | 열매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향기롭다.  |
| 밤송이의 가시     | 날카롭다. 따갑다 | 밤통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너그럽다.  |
| 복어의 독       | 생명이 위험하다. | 복어알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사랑이다. |
| 친구의 금주 결심   | 독하다       | 자식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아름답다.  |

## ■ 표현상 특징과 효과

- 구린내의 향기로움
- 독에 담긴 사랑
- 가시의 너그러움
- 독한 마음의 아름다움

겉으로 보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은 표현이지만 그 속에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역설적 표현

-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함.
- 참신한 느낌을 줌.

## ■ 시에 쓰인 심상과 표현 효과

|        |               |
|--------|---------------|
| 후각적 심상 | 구린내, 향기로움     |
| 촉각적 심상 | 따가움, 날카롭게 찌름. |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함.

## 서술형 체크 ✓

## 1 이 시에 주로 쓰인 표현법을 쓰시오.

답 역설법

해설 이 시에서는 서로 모순된 표현을 통해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역설적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다.

## 2 이 시의 화자가 친구의 독한 마음을 은행 냄새, 밤 가시, 복어의 독과 견주어 아름답다고 생각한 이유를 쓰시오.

답 열매나 씨앗,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설 이 시에서는 우리가 평소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은행의 냄새, 밤 가시, 복어의 독과 같이 친구가 술을 끊은 것도 자식을 지켜 내려는 본능적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

• 교학사, 비상, 천재(노), 천재(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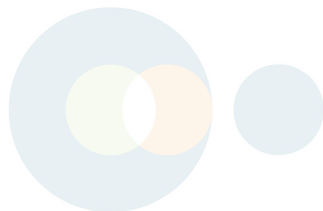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EBS



##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애상적, 반어적 |
| 화자 | 떠난 임을 잊지 못하는 '나'                                                                                                                                           | 제재 | 임과의 이별   |
| 주제 |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하려는 바를 정반대로 표현하여 주제를 강조함.</li> <li>•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함.</li> <li>• 한 행을 일정한 음보로 구성하여 운율을 형성함.</li> </ul> |    |          |

## 100점 특강

## ■ 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

| 시간적 상황    | 심리적 상황              |
|-----------|---------------------|
| 임과 이별한 직후 | 임과의 이별로 인해 슬프고 안타까움 |

## ■ 표현상 특징과 효과

| 화자의 말                                                                                                                                            | 화자의 마음            |
|--------------------------------------------------------------------------------------------------------------------------------------------------|-------------------|
| 나는 당신을 잊었습니다.                                                                                                                                    | 나는 당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자의 마음을 반대로 표현하여 이별로 인한 슬픔과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함.</li> <li>• 직접적인 표현보다 화자의 정서와 의도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임.</li> </ul> |                   |

## ■ 운율 형성 방법

|           |                                              |
|-----------|----------------------------------------------|
| 시어의 반복    | '먼 훗날', '당신이', '잊었노라'라는 시어를 반복함.             |
| 문장 구조의 반복 | '당신이 ~면 잊었노라'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함.                  |
| 3음보의 반복   | '먼 훗날' ∨ '당신이' ∨ '찾으시면'과 같이 각 행을 3음보로 끊어 읽음. |

## 서술형 체크 ✓

- 이 시에서 '잊었노라'에 담겨 있는 이면적 의미를 쓰시오.  
 ① 당신을 잊을 수 없다.  
 ② 이 시의 화자는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임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는 점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이 시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중심으로 감상할 때,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쓰시오.  
 ① 반어적 표현,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할 수 있다.  
 ② 반어법은 실제로 말하려는 바를 반대로 표현하여 더욱 강한 인상을 주면서 의도를 강조한다.



\*모진 소리를 들으면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더라도  
 내 귀를 겨냥한 소리가 아니더라도  
 모진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진다.  
 온몸이 쿡쿡 아파 온다  
 누군가의 온몸을  
 가슴속부터 찢 금 가게 했을  
 모진 소리

나와 헤어져  
 텅텅거리는 지하철에서  
 고개를 수그리고  
 내 모진 소리를 자꾸 생각했을  
 내 모진 소리에 무수히 \*정 맞았을  
 누군가를 생각하면  
 모진 소리,  
 \*늑골에 정을 친다  
 찢어엿 세상에 금이 간다.

- \* 모진: 괴로움이나 아픔 따위의 정도가 지나치게 심한.  
 \* 장: 구멍을 뚫거나 돌을 쏘아서 다듬는, 쇠로 만든 연장.  
 \* 늑골: 가슴을 구성하는 뼈. 가슴뼈.

##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감각적, 성찰적 |
| 화자 | 모진 소리를 들으며 자신을 성찰하는 '나'                                                                                                                                            | 제재 | 모진 소리    |
| 주제 |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말에 대한 성찰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의 화자가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지난 행동을 성찰함.</li> <li>다양한 심상을 사용해 주제를 감각적으로 드러냄.</li> <li>동일한 시구나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li> </ul>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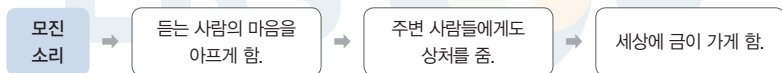
## 100점 특강

## ■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

이 시의 화자는 모진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이 자신이 한 소리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한 소리도 아님에도 몸과 마음이 아파 오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모진 소리에 상처받았을 누군가를 생각하며 지난 행동을 성찰한다. 이 시에서 1연의 '모진 소리'는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재를 '성찰의 매개체'라고 한다.

| 1연                            | 시적 상황 | 2연                                 |
|-------------------------------|-------|------------------------------------|
| 화자가 다른 사람이 하는 모진 소리를 들음.      | ...   | 화자가 자신이 과거에 한 모진 소리를 생각함.          |
| 자신과 관계없는 소리이지만 몸과 마음이 아픔을 느낌. | 정서    | 자신의 모진 소리에 상처받았을 누군가를 생각하며 마음 아파함. |
| ...                           |       | ...                                |
| 성찰의 계기                        |       | 성찰                                 |

## ■ '모진 소리'의 영향



## ■ 다양한 심상의 표현 효과

|        |              |                                 |
|--------|--------------|---------------------------------|
| 시각적 심상 | 고개를 수그리고     | → 모진 소리로 인한 사람들의 상처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
| 청각적 심상 | 모진 소리        |                                 |
| 촉각적 심상 | 온몸이 쿡쿡 아파 온다 |                                 |

## 서술형 체크 ✓

1 이 시에서 '자아 성찰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소재를 쓰시오.

답 모진 소리

해설 화자는 '모진 소리'를 들으며 느낀 아픔을 통해 자신의 모진 소리에 상처받았을 누군가를 생각하며 과거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2 이 시에 쓰인 심상 세 가지를 쓰시오.

답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해설 이 시에서는 다양한 심상을 사용하여 모진 소리로 인한 사람들의 상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 마을, 고향 마을 시냇가에 자갈밭엔  
별보다 고운 자갈이 \*지천으로 깔렸는데  
던지면 도마뱀처럼 물길 찰찰 건너갔지.

공부도 하기 싫고, 노는 것도 시시한 날  
나는 냇가로 나가 물수제비 떠먹었지.  
자갈이 수제비 되어 풍당풍당 나를 달랬지.

\* 지천: 매우 흔함.



##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현대 시조, 연시조(정형시, 서정시)                                                                                                                                                                        | 성격 | 회상적, 향토적, 자연 친화적 |
| 화자 | 어린 시절 물수제비를 통해 위로를 받던 '나'                                                                                                                                                                   | 제재 | 물수제비 놀이          |
| 주제 | 고향과 자연에 대한 그리움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을 바탕으로 사상을 전개함.</li> <li>• 순수한 동심과 자연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룸.</li> <li>• 4음보의 규칙적인 운율을 형성함.</li> <li>• 의태어와 의성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함.</li> </ul> |    |                  |

## 100점 특강

## ■ 표현 대상

| 1연            |
|---------------|
| '나'의 외적 상황    |
| ⋮             |
| 강가에서 물수제비를 뜬. |



| 2연                     |
|------------------------|
| '나'의 내적 상황             |
| ⋮                      |
| 물수제비를 통해 외로움과 무료함을 달랠. |

## ■ 시어의 함축적 의미

물수제비

어린 화자('나')의 외로움을 달래 주는 대상

## ■ 화자의 정서 변화

| 물수제비 뜨기 전             |
|-----------------------|
| 공부도 하기 싫고, 노는 것도 시시할. |
| ⋮                     |
| 무료함                   |



| 물수제비 뜬 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갈을 던지면 도마뱀처럼 물길 찰찰 건너감.</li> <li>• 자갈이 수제비 되어 풍당풍당 '나'를 달랠.</li> </ul> |
| ⋮                                                                                                                |
| 즐거움                                                                                                              |

## 서술형 체크 ✓

## 1 이 시에 드러난 운율을 바탕으로 각 연의 3행을 끊어 읽어 보시오.

답 던지면 √ 도마뱀처럼 √ 물길 찰찰 √ 건너갔지

자갈이 √ 수제비 되어 √ 풍당풍당 √ 나를 달랬지

해설 이 시는 2연으로 이루어진 연시조로, 각 연은 3장 6구 45자 내외의 형식을, 각 행은 4음보의 율격을 갖추고 있다.

## 2 이 시의 화자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쓰시오.

답 자연 친화적

해설 이 시의 화자는 어린 시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고향 마을의 시냇가에서 물수제비를 뜨고 있다. 순수한 동심과 함께 자연을 친밀하게 대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 어둡더라도  
결코 인당수에는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어머니, / 저는 여기 남아 책을 보겠습니다

나비여, / 나비여,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고치를 버리는 것이 / 죄입니까?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이 / 죄일까요?  
그 대신 점자책을 사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 드리지요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와 같은 것 - /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의지적, 설득적  |
| 화자 | 어머니가 눈을 뜨기를 바라는 '나'                                                                                                                                          | 제재 | 「심청전」의 내용 |
| 주제 |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적인 태도의 필요성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전 소설 「심청전」을 재구성한 작품임.</li> <li>• 소설 속 '심청'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주체적인 삶을 강조함.</li> <li>• 어머니에게 말을 건네는 말투를 사용함.</li> </ul> |    |           |

## ■ 원작(『심청전』)과 시의 비교

|     |          | 『심청전』                                                      | 『배꼽을 위한 연가 5』                                                     |
|-----|----------|------------------------------------------------------------|-------------------------------------------------------------------|
| 공통점 |          | • 소재: 인당수, 공양미 삼백 석                                        | • 상황: 부모가 눈이 보이지 않음.                                              |
| 차이점 | 갈래       | 소설                                                         | 시                                                                 |
|     | 대상의 상황   |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버지임.<br>→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함. |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머니임.<br>→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함. |
|     | 문제 해결 방법 | 심청의 무조건적인 희생(공양미 삼백 석을 위해 인당수에 빠짐.)                        | 화자가 자신은 책을 읽고, 어머니에게는 점자책을 사 드림.                                  |

## ■ 시의 화자의 태도

이 시의 화자는 『심청전』에 나오는 ‘심청’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심청을 효녀로 보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해석과 다른 개성적인 관점이다.

| 『심청전』의 심청                     | 이 시의 화자                                                |
|-------------------------------|--------------------------------------------------------|
|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빠지고 부처님의 도움을 바람. | 자신은 책을 보고 어머니에게는 점자 읽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다고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고 강조함. |
| 타인의 도움으로 문제 해결                |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 해결                                         |

## 서술형 체크 ✓

- 1 이 시가 『심청전』을 재구성했음을 알게 해 주는 소재 두 가지를 쓰시오.

답 인당수, 공양미 삼백 석

해설 고전 소설 『심청전』에서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려고 인당수에 빠져 죽는다.

- 2 이 시의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 쓰시오.

답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삶

해설 공양미를 구하기 위해 인당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스스로 점자책을 읽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하고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긍정적, 낙관적     |
| 화자 | 겉으로 드러나지 않음.                                                                                                                                              | 제재 |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 |
| 주제 | 희망과 사랑으로 삶을 개척하는 태도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li> <li>•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함.</li> <li>• 비슷한 문장을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li> </ul> |    |              |

## 100점 특강

## ■ 시의 짜임

|        |                                         |
|--------|-----------------------------------------|
| 1~6행   |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끝없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음.           |
| 7~9행   | 강물은 흐르다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꽃잎이 흩어짐.  |
| 10~14행 |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 길을 걷는 사람이 있음. |

## ■ 시구의 대조적 의미

| 절망적 상황                                                                                                                 | 희망을 만드는 모습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li> <li>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li> <li>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길이 되는 사람</li> <li>끝없이 걸어가는 사람</li> <li>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li> <li>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li> </ul> |

## ■ 표현상 특징

|               |                                                                  |
|---------------|------------------------------------------------------------------|
|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 3~4행과 11~12행, 5~6행과 13~14행이 서로 유사한 문장 구조로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함. |
| 역설적 표현        |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 길이 있다'라는 모순된 표현을 통해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전달함.  |

## 서술형 체크 ✓

1 이 시에서 '길이 끝나는 곳'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시행)을 찾고 그 상징적 의미를 쓰시오.

답 7~9행, 슬프고 힘든 현실, 절망적 상황

예) 이 시는 '길이 끝나는 곳', '사랑이 끝나는 곳'이라는 시구를 통해 절망적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이 절망적 상황은 '강물이 멈추고, 새들이 돌아오지 않고, 꽃잎이 흩어져' 버리는 자연 현상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2 이 시에서 '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의미를 쓰시오.

답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과 꿈을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

예) '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길이 끝나고 사랑이 끝나는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걸어가는 사람, 즉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다른 사람이 걸어갈 길을 만들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다.



사람한테 잡혀가도 입을 크게 벌리고만 있으면 산다고 아버지한테 귀찮도록 들었습니다 사람한테 잡혀가도 눈을 크게 \*부라리고만 있으면 사람들이 겁먹고 도망간다고, 눈을 똑바로 뜨고만 있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간다고 아버지한테 귀찮지게 들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눈 하나 깜빡대지 않고 크게 뜨고 있는 내가 무섭지요 벌벌 떨리지요?

\* 부라리고만: 눈을 크게 뜨고 눈망울을 사납게 굴리고만.



##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산문시, 서정시                                                                                                                                                                                              | 성격 | 풍자적, 우의적, 해학적 |
| 화자 | ‘나’(북어)                                                                                                                                                                                               | 제재 | 북어의 외양        |
| 주제 | 실속 없이 위압적인 모습으로 권세를 부리려는 사람들에 대한 풍자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문적인 문체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며 리듬감을 느끼게 함.</li> <li>• ‘북어’를 화자로 내세워 시상을 전개함.</li> <li>• 북어의 모습에 아버지의 말씀을 곁들여 웃음을 유발함.</li> <li>• 북어의 말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풍자함.</li> </ul> |    |               |

## 100점 특강

## ■ 시의 화자의 상황과 태도

이 시의 화자는 사람이 아니고, 복어이다. 시인은 자신이 직접 시의 화자로 등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화자로 내세워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시처럼 사람이 아닌 화자를 내세우기도 한다.

|       |        |                         |
|-------|--------|-------------------------|
| 시의 화자 | 화자의 상황 | 사람들에게 잡혀 와 가게에 진열되어 있음. |
| 복어    | 화자의 태도 | 자신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함.  |

## | 참고 |

복어는 어류의 정식 이름이 아니다. 생선의 한 종류인 명태를 말린 것을 복어라고 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잡혀 온 것은 복어가 아니라 명태이다. 참고로 명태는 이름이 많다. 명태의 새끼는 노가리라고 하고, 명태를 말리거나 얼리는 방법·상태에 따라 생태, 동태, 황태, 복어, 코다리 등으로 불린다.

## ■ 시의 풍자적 의미

| 복어                                             | 풍자 | 사람들                                               |
|------------------------------------------------|----|---------------------------------------------------|
|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면<br>사람들이 자신을 무서워한다고 생각함. |    |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위압적인 모습을 보이면<br>그 사람들이 자신을 무서워한다고 생각함. |
| ⋮                                              |    | ⋮                                                 |
| 실제로 사람들은 복어를 무서워하지 않음.                         |    |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br>위압적인 모습의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음.             |

## 서술형 체크 ✓

## 1 시의 화자와 관련해서 이 시의 특징을 쓰시오.

답 사람이 아닌 '복어'를 화자로 내세워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해설 이 시의 화자는 복어이다. 시인은 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람이 아닌 화자를 내세우기도 한다.

## 2 이 시에서 풍자하는 대상을 쓰시오.

답 실속 없이 허풍으로 권위만 내세우는 사람

해설 복어가 '입을 크게 벌리고만' 있고 '눈을 크게 부라리고만' 있는 모습에서 떠오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한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의지적, 고백적 |
| 화자 |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나'                                                                                                                            | 제재 | 길        |
| 주제 | 언제나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의 삶을 길에 빗대어 표현함.</li> <li>• 3연을 중심으로 의미상 대칭 구조를 이룸.</li> <li>• 수미 상관 기법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함.</li> </ul> |    |          |

## 100점 특강

## ■ 시의 구조

| 1연                            | 2연                    | 3연                        | 4연                            | 5연                               |
|-------------------------------|-----------------------|---------------------------|-------------------------------|----------------------------------|
| 어려움을 극복하고<br>평화로운 곳으로<br>나아감. | 자신이 걷는 길을<br>새롭게 바라봄. | 길을 가면서<br>다양한 존재들을<br>만남. | 앞으로의 길을<br>새롭게 걸어갈<br>것을 다짐함. | 어려움을<br>극복하고<br>평화로운 곳으로<br>나아감. |
|                               |                       | 대칭                        |                               |                                  |
|                               |                       | 대칭                        |                               |                                  |

## ■ 시어의 상징적 의미

|                  |     |                                                                                            |
|------------------|-----|--------------------------------------------------------------------------------------------|
| 길                | ... | 인생                                                                                         |
| 내, 고개            | ... | 시련, 고난, 어려움                                                                                |
| 숲, 마을            | ... | 희망, 평화                                                                                     |
| 만들레, 까치, 아가씨, 바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존재</li> <li>삶에 희망을 주는 존재</li> </ul> |

## 서술형 체크 ✓

## 1 이 시에서 화자가 걷는 '길'의 의미를 쓰시오.

답 화자의 인생, 화자의 삶의 과정

해설 화자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 2 이 시의 화자의 길에 있는 '내, 숲, 고개, 마을'의 상징적 의미를 쓰시오.

답 내, 고개 - 화자가 살면서 겪는 시련이나 고난

숲, 마을 - 화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평화로운 삶의 시간이나 공간

해설 화자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건너서 '마을'로 가고자 한다. 이는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통을 이겨 내고 평화로운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다.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배 속에 붕어 새끼 두어 마리 \*요동을 칠 때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 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멘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면 달아 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붕어가 다섯 마리  
내 열여섯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 한기: 추운 기운.

\* 요동: 흔들리어 움직임. 또는 흔들여 움직임.

##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감각적, 일상적 |
| 화자 | 열여섯 살의 학생인 '나'                                                                                                                                                                | 제재 | 붕어빵 다섯 개 |
| 주제 | 친구가 가방 속에 넣어 준 붕어빵에서 느끼는 따뜻한 우정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시선으로 참다운 우정과 배려하는 마음의 가치에 대해 전달함.</li> <li>• 촉각적 심상을 주로 사용하여 상황과 정서를 표현함.</li> <li>•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줌.</li> </ul> |    |          |

## 100점 특강

## ■ 시의 화자

|           |                                                                                       |
|-----------|---------------------------------------------------------------------------------------|
| 화자의 신분    | 열여섯 살의 학생                                                                             |
| 화자의 처지    |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로운 처지                                                                      |
| 화자의 정서    | 친구가 가방에 넣어 준 봉어빵을 통해 따뜻한 감동을 느낌.                                                      |
| 화자 설정의 효과 | <div>청소년 사이의 우정의 가치를 청소년의 시선으로 전달함.</div> <div>→</div> <div>생생한 현실감과 따뜻한 감동을 줌.</div> |

## ■ 대조적 심상

| 차가움                               | 따뜻함                             |
|-----------------------------------|---------------------------------|
|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br>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 |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br>가장 따뜻했던 저녁 |
| 부정적인 현실                           | 친구의 우정                          |

## ■ 소재의 상징적 의미

|         |                            |
|---------|----------------------------|
| 내 방, 우유 | 화자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로운 처지를 드러냄. |
| 봉어빵     | 친구를 생각하는 선재의 따뜻한 마음을 드러냄.  |

## 서술형 체크 ✓

- 1 화자의 부정적인 현재 처지를 드러내는 시구 두 개를 찾아 쓰시오.
- 2 이 시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대조적으로 활용한 심상을 쓰시오.

답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 학교에서 받은 우유

해설 화자가 외로운 처지이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답 축각적 심상

해설 화자의 현재 처지를 드러내는 차가운 심상(한기, 썰렁한 내 방)과 따뜻한 정을 의미하는 따뜻한 심상(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 따뜻했던 저녁)이 대조되고 있다.

• 천재(노), 천재(박)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 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었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 윗목: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의 차가운 방바닥.

##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회고적, 애상적  |
| 화자 |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나'                                                                                                                                                           | 제재 | 유년 시절의 기억 |
| 주제 |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외롭고 쓸쓸한 기억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인이 된 화자가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시상을 전개함.</li> <li>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냄.</li> <li>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함.</li> </ul> |    |           |

## ■ 시의 화자의 처지와 정서

이 시의 화자는 성인이 된 ‘나’로 시인 자신이라고 볼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그 시절에 느꼈던 정서를 다시금 떠올리고 있다.

|    | 1연(과거)                             | 2연(현재)                    |
|----|------------------------------------|---------------------------|
| 처지 | 배추를 팔러 장에 가서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림. | 유년 시절의 일을 회상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짐. |
| 정서 | 외로움, 무서움                           | 안타까움                      |

## ■ 시에 쓰인 표현 방법

| 표현 방법 | 시구             | 표현하려는 내용                                                    |
|-------|----------------|-------------------------------------------------------------|
| 활유법   | 해는 시든 지 오래     | 해가 지는 것을 팔리지 않아 시들었을 열무처럼 표현함.<br>→ 시간의 흐름과 엄마의 고단한 삶을 드러냄. |
| 직유법   | 찬밥처럼 방에 담겨     | 엄마를 기다리는 ‘나’의 외로움, 서글픈 처지를 드러냄.                             |
|       | 배추 앞 같은 발소리    | 피곤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엄마의 발걸음을 표현함.<br>→ 엄마의 가난하고 고된 삶을 드러냄.        |
| 은유법   | 그 시절, 내 유년의 뒷목 | 외롭고 힘들었던 유년의 기억을 차가운 뒷목에 비유함.                               |

## 서술형 체크 ✓

- 1 현재의 ‘나’의 정서를 드러내는 시행을 찾아 쓰시오.
- 2 과거의 ‘나’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시행을 찾아 쓰시오.

답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해설 ‘나’는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며 외로움과 무서움에 홀쩍거리던 유년을 생각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있다.

답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해설 엄마를 기다리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찬밥’에 비유하고 있다.



내 건 검은색에 흰 줄 / 진명이는 하늘색에 흰 줄

진명이와 나는 슬리퍼 한 짝씩 바꿔 신었습니다.

나는 내 것 왼쪽에 진명이 것 오른쪽

진명이는 내 것 오른쪽에 진명이 것 왼쪽

서로의 절반씩을 줘 버리고 나니 / 우린 그렇게 절반씩 부족합니다.

서로의 부족한 절반을 알고 있기에

그 서로의 반쪽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다.

한쪽 날개밖에 없는 두 마리 새가 만나

두 날개로 하나 되어 날아간다는 ㉠\* 비익조처럼 / 우린 둘이서 하나입니다.

실내화 한 짝씩 바꾸어 신었을 뿐인데

내가 두 개가 된 느낌 / 내가 두 배가 된 느낌

힘도 꿈도 강도 / ㉡ 하나이면서 둘인, 둘이면서 하나인

온 세상이 온통 우리 것 같은 느낌입니다.

\* 절친: 절친한 친구의 줄임말. 일반 친구보다 사이가 더욱 좋고 친한 친구.

\* 비익조: 암컷과 수컷의 눈과 날개가 하나씩이어서 짝을 짓지 아니하면 날지 못한다는 전설상의 새.

##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일상적, 역설적 |
| 화자 | 학생인 '나'                                                                                                                                                                            | 제재 | 슬리퍼(실내화) |
| 주제 | 슬리퍼 한 짝씩을 바꿔 신으며 느끼는 우정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을 화자로 내세워 우정에 대해 이야기함.</li> <li>•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줌.</li> <li>•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운율을 느끼게 함.</li> <li>•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함.</li> </ul> |    |          |

## 100점 특강

## ■ 개성적 발상과 표현

하나이면서 둘인, 둘이면서 하나인

| 표면적 의미                                | 시인의 의도                                            |
|---------------------------------------|---------------------------------------------------|
| '하나'이면서 동시에 '둘'이 될 수 없다는 면에서 모순된 표현임. | 슬리퍼를 바꿔 신음으로써 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가깝게 느껴진다는 내용을 표현하고자 함. |

표면적으로는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시인의 의도를 강조하여 드러낸 역설적 표현임.

## ■ 대구적 표현의 시적 효과

- 내 건 검은색에 흰 줄 / 진명이는 하늘색에 흰 줄
- 나는 내 것 왼쪽에 진명이 것 오른쪽 / 진명이는 내 것 오른쪽에 진명이 것 왼쪽
- 내가 두 개가 된 느낌 / 내가 두 배가 된 느낌
- 하나이면서 둘인, 둘이면서 하나인

유사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느끼게 하며 읽는 재미를 주고 의미가 강조됨.

## 서술형 체크 ✓

1 ㉠에 빗대어 표현하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답 '나'와 진명이가 한 몸처럼 가까워졌다.

해설 비약조는 두 마리 새가 만나 하나가 되어 날아간다는 전설의 새이다. 이를 통해 실내화를 나누어 신고 한 몸처럼 가까워진 두 친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 ㉡에서 사용한 표현 방법 두 가지를 쓰시오.

답 역설법, 대구법

해설 하나가 돌이고 돌이 하나라는 표현은 모순이지만, 그 속에 친구와 우정으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역설적 표현이다. 또한 비슷한 구절을 반복하는 대구적 표현이다.

\* 동아, 지학사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영변: 평안북도에 있는 지명.

\* 약산: 약산 동대를 가리키는 말. 진달래가 곱기로 유명함.

##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애상적, 민요적 |
| 화자 | 이별의 슬픔을 참고 견디겠다는 '나'                                                                                                                                                                            | 제재 | 임과의 이별   |
| 주제 | 이별의 정한(情恨)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요적 율격을 활용하여 애상적 정서를 강조함.</li> <li>• 여성적인 목소리로 화자의 정서를 애절하게 드러냄.</li> <li>• 이별의 슬픔을 반어적으로 표현함.</li> <li>• 3음보, 수미 상관, '- 오리다'의 반복으로 운율을 살림.</li> </ul> |    |          |

## 100점 특강

## ■ 시상 전개 과정



## ■ 표현상 특징과 효과

|    |                                      |
|----|--------------------------------------|
| 표현 |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 의미 | 너무 큰 슬픔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임.               |



실제 말하고자 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표현하여 이별하는 슬픔을 더 강하게 드러냄.

## ■ 소재의 의미

진달래꽃

• (시인의) 고향을 대표하는 꽃 - 소중한 것    • 아람답고도 희생적인 사랑

## 서술형 체크 ✓

1 이 시에서 임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를 쓰시오.

답 희생적 태도

해설 이 시의 '나'는 임이 떠나는 일이 마음으로는 너무 슬프지만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임이 떠나는 길을 축복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2 다음은 이 시의 4연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임이 나를 떠나는 것은 너무도 슬픈 일이지만 겉으로는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표현하여 (                      )을/를 반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답 너무 슬퍼서 피눈물을 흘릴 수 있음.

해설 이 시의 화자는 이별을 맞아 겉으로는 수용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너무 슬퍼서 임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로 표현하고 있다.

**줄거리** 화가인 남자(백선규)와 그림 애호가인 여자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과거를 회상한다. 남자는 화가를 꿈꾸었으나 가정 형편으로 농부가 된 아버지를 둔 가난한 집 아들이다. 여자는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집의 딸이다. 둘은 4학년 때 같은 미술 대회에 학교 대표로 참가한다. 남자는 이미 3학년 때 4학년을 대신해 이 대회에 참가해 대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4학년이 되어 다시 참가하여 또 한 번 대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전시된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자의 것임을 알게 된다. 여자가 그림에 번호를 잘못 적어 낸 것이다. 남자는 대상의 주인공이 바뀐 것을 알았지만,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 그리고 여자 또한 대상 그림이 자신의 것임을 알았지만, 상에 별 관심이 없어서 말없이 지나간다. 세월이 흘러 남자는 유명한 추상화가 되고, 여자는 판사와 결혼하여 부유하게 산다. 여자는 우연히 남자를 보지만 아는 척하는 것이 귀찮아 그저 보기만 한다.

## 핵심 정리

| 갈래 |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
|----|---------------------------------------------------------------------------------------------------------------------------------|----|------------|
| 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시간적: 초등학교 시절 / 공간적: 지방의 작은 마을</li> <li>• 현재-시간적: 성인이 된 시절 / 공간적: 서울</li> </ul>      |    |            |
| 주제 | 어린 날의 선택이 삶에 미치는 영향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인물들이 각자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함.</li> <li>• 두 명의 서술자가 등장하여 동일한 사건을 각자의 시각에서 전달함.</li> </ul> |    |            |

## 100점 특강

### 서술상 특징과 효과

'남자(백선규)'와 '여자' 두 명의 서술자가 번갈아 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함.



동일한 사건에 대한 두 사람의 심리가 함께 드러나 비교하며 읽는 재미가 있음.

### 주요 인물

|    | 남자(백선규)                | 여자                    |
|----|------------------------|-----------------------|
| 환경 | 가난한 농부의 아들             | 부유한 재재소 집 딸           |
| 심리 | 사실을 알리는 것이 두려워 말하지 않음. | 상에 관심이 없어 사실을 말하지 않음. |
| 현재 | 유명한 추상화가               | 판사의 부인                |

**줄거리** ‘나(아름)’는 17살 소년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지금의 ‘나’의 나이인 17살에 ‘나’를 낳았다. 그런데 ‘나’는 남들보다 빨리 늙는 조로병에 걸려서 나이는 17살이지만 여든 살 노인의 몸을 갖고 있다. 어느 날 자신의 병원비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부모님의 대화를 들은 ‘나’는 방송에 출연한 후 시청자들이 보낸 성금으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후에 자신도 중병을 앓고 있다는 서하라는 17살 여자아이가 보낸 메일을 받는다. ‘나’는 누군가를 좋아하다가 혹시 세상마저 좋아질까 두려워 주저하다가 결국 서하에게 답장을 보낸다. 그리고 여름 동안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처음으로 이성을 좋아하게 되고, 두근거리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서하는 존재하지 않은 아이로, 시나리오 작가를 지망한다는 남성이 만들어 낸 인물이었다. 그 충격으로 ‘나’는 병이 악화되는데 그 와중에 서하로부터 마지막 편지가 오고, ‘나’는 답장을 쓰며 마지막에 ‘보고 싶을 거야.’라는 말을 남긴다.

##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현대 소설, 장편 소설                                                                                                                                     |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
| 배경 | 시대적: 현대 / 공간적: 도시                                                                                                                                | 주제 | 조로증에 걸린 소년의 삶과 가족의 사랑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귀병’과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내용을 밝게 그려 냄.</li> <li>· 남들보다 빨리 나이를 먹는 병에 걸린 주인공을 통해 사람의 인생을 압축적으로 보여 줌.</li> </ul> |    |                       |

## 100점 특강

### 소설과 시나리오의 비교

|     | 소설                                                                                                                   | 시나리오                                                                                                 |
|-----|----------------------------------------------------------------------------------------------------------------------|------------------------------------------------------------------------------------------------------|
| 공통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물들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의해 내용이 전개됨.</li> <li>· 작가가 만들어 낸 허구적인 이야기임.</li> </ul> |                                                                                                      |
| 차이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자체로 완결된 문학임.</li> <li>· 서술자에 의해 내용이 전달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상영을 위한 대본임.</li> <li>· 배우들의 대사와 행동으로 내용이 전달됨.</li> </ul> |

### ‘두근두근’의 의미

|         |                                   |
|---------|-----------------------------------|
| 심장의 박동  | 임신 중이던 어머니의 뱃속에서 들리던 아름의 심장 박동    |
| 부모의 사랑  | 희귀병에 걸린 아름을 향한 부모님의 헌신적 사랑        |
| 아름이의 사랑 | 열일곱 살의 나이에 처음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 아름의 설렘 |

• 교학사, 금성, 미래엔, 천재(노), 천재(박), 지학사, 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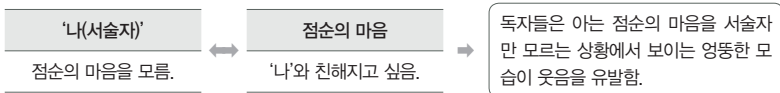
**줄거리** 나무를 하러 산에 가던 '나'는 자신의 수탉이 점순네 수탉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 점순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은 나흘 전부터이다. 일을 하는 '나'에게 점순이 평소와 달리 친한 척하며 감자를 건넸다. 감자로 생색을 내는 것 같아 거절했더니 눈물까지 어리어 달아났던 점순이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점순이 '나'의 암탉을 때리거나, 자기네 수탉과 '나'의 수탉을 싸움 붙이는 것이었다. '나'는 늘 당하기만 하는 자신의 수탉이 힘을 쓰도록 고추장까지 먹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또 점순이가 닭싸움을 붙인 것이다. 처음에는 마름인 점순네 땅을 빌려 쓰는 자기 집의 처지를 생각해 참았으나,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또다시 닭싸움을 붙인 것을 보고는 결국 화를 못 참고 점순네 닭을 단매로 때려죽인다. 겁을 먹고 우는 '나'에게 점순은 자기 말을 들으면 이르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는 '나'와 함께 동백꽃 속으로 쓰러진다. '나'는 노란 동백꽃의 알싸한 향기에 정신이 아찔함을 느낀다.

## 핵심 정리

| 갈래 |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
|----|-----------------------------------------------------------------------------------------------------------------------------------------------------------------|----|------------|
| 배경 | 시대적: 1930~40년대 / 공간적: 어느 산골 농촌 마을                                                                                                                               |    |            |
| 주제 | 사춘기 산골 남녀의 순박한 사랑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과거-현재'의 역순행적 구성임.</li> <li>• 토속적인 소재와 비속어를 사용하여 향토적인 느낌을 줌.</li> <li>• 어리숙하고 순박한 '나'를 서술자로 설정해 해학성을 높임.</li> </ul> |    |            |

## 100점 특강

###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



### 소재의 역할

|     |                                        |
|-----|----------------------------------------|
| 감자  | '나'와 친해지고 싶은 점순의 마음을 드러내고, 갈등의 원인이 됨.  |
| 닭싸움 | 점순의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는 한편, 마름과 소작인의 관계가 드러남. |
| 동백꽃 | 향토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남녀 간의 미묘한 감정을 상징함.     |

**줄거리** 여섯 살 난 여자아이인 '나'(옥희)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어머니, 작은 외삼촌과 함께 살고 있는 집 사랑방에 아버지의 친구인 아저씨가 하숙을 하게 된다. 아저씨는 '나'를 귀여워해 주면서 한편으로 어머니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 어느 날 '나'가 아저씨와 뒷동산에 놀러 갔다가 불쑥 아저씨가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자, 아저씨는 얼굴을 붉힌다. 또한 '나'가 자신이 뽑아 온 꽃을 거짓말로 아저씨가 준 것이라고 어머니에게 건네자 어머니도 얼굴이 빨개진다. 그런 아저씨와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어른들이 화가 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유는 알지 못한다. 며칠 후, 아버지의 옷을 꺼내 보면서 무언가를 생각하던 어머니는 '나'를 통해 편지가 든 손수건을 아저씨에게 전달한다. 편지를 읽은 아저씨는 집을 떠나고, 어머니는 '나'와 함께 뒷동산에 올라가 아저씨가 탔을 기차를 바라본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가 가끔 치던 풍금의 뚜껑은 다시 닫히고, 어머니는 아저씨가 좋아하던 달걀도 사지 않게 된다.

## 핵심 정리

| 갈래 |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시점 | 1인칭 관찰자 시점 |
|----|-----------------------------------------------------------------------------------------------------------------------------|----|------------|
| 배경 | 시대적: 1930년대 / 공간적: 어느 작은 마을                                                                                                 |    |            |
| 주제 |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애틋한 사랑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아이가 서술자로 등장하여 어른들의 이야기를 전달함.</li> <li>• 봉건적인 윤리관과 인간의 감정 사이의 갈등이 드러남.</li> </ul> |    |            |

## 100점 특강

### ■ 서술상 특징과 효과

|     |                                                                                                                                |
|-----|--------------------------------------------------------------------------------------------------------------------------------|
| 서술자 | '나(여섯 살 아이인 옥희)'로, 자신이 관찰한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관계를 전달함.                                                                                 |
| 특징  |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전달하지 못함.                                                                                         |
| 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른들의 심리를 모르는 영동한 해석이 웃음을 유발함.</li> <li>• 어머니와 사랑손님의 관계가 순진한 아이의 눈을 통해 전달됨.</li> </ul> |

### ■ 소재의 역할

|       |                                            |
|-------|--------------------------------------------|
| 삶의 달걀 | 아저씨에 대한 어머니의 호감을 보여 줌.                     |
| 풍금    | 열림과 닫힘의 상태를 통해 사랑손님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을 드러냄.      |
| 사진, 옷 | 어머니에게 남아 있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 어머니의 내적 갈등의 원인이 됨. |



• 미래엔, 천재(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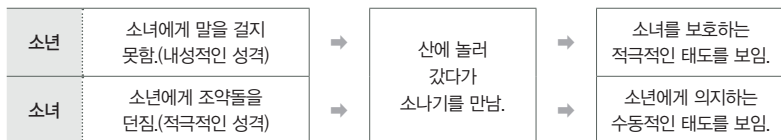
**줄거리** 소년은 징검다리 한가운데에서 물놀이를 하는 서울 소녀에게 비켜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해 개울을 건너지 못한다. 그런 소년에게 소녀는 '바보'라고 말하며 조약돌을 던지고 달아나고, 소년은 조약돌을 주워 주머니에 넣는다. 어느 날 소년은 소녀의 제안으로 함께 산에 놀러 간다. 무도 뿔아 먹고, 꽃도 따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낸 소년과 소녀는 산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난다. 좁은 수숫단 속에서 함께 비를 피하면서 소년과 소녀는 서로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낀다. 소나기가 그친 후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 물이 붉은 도랑을 만난 소년은 소녀를 업고 도랑을 건넌다. 그 후 한참 만에 다시 만난 소녀는 수척해진 얼굴로 산에 갔다 온 이후로 많이 아팠다며, 곧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말을 한다. 소녀를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리워만 하던 소년은 소녀가 이사 가기로 한 전날 밤에 잠을 자다가 깨어, 소녀가 죽었다는 부모의 대화를 듣게 된다. 그리고 소녀가 소년과 산에 갈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는 말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시점 | 3인칭 관찰자 시점(부분적으로 전지적 시점) |
| 배경 | 시대적: 현대 / 공간적: 어느 산골 마을                                                                                                         |    |                          |
| 주제 | 시골 소년과 도시 소녀의 순수한 사랑과 추억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속적인 소재와 전원적인 배경 묘사로 향토적인 느낌을 줌.</li> <li>• 상징적이면서 압축적인 제목으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li> </ul> |    |                          |

## 100점 특강

### ■ 인물의 태도 변화



### ■ '소나기'의 역할 및 상징성

소나기



- 소년과 소녀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됨.
- 짧은 순간 갑작스럽게 왔다 간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의미함.

**줄거리** 도완득은 난쟁이 아버지와 베트남 출신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고등학생이다. 어머니가 떠나고 아버지와 민구 삼촌과 셋이 옥탑방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이웃에 동주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완득의 담임 선생님이 이동주가 살고 있다. 완득은 될 놈들만 따로 시키라는 특이한 교육 철학으로 늘 자신을 괴롭히는 담임을 향해 죽으라는 기도를 열심히 하며 사는데, 실상 담임은 완득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 관심이 귀찮았던 완득에게 어느 날 담임은 그동안 완득이가 몰랐던 엄마 이야기를 한다. 그의 생모가 베트남에서 왔는데 춤꾼으로 사는 아버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떠났다는 것이다. 완득은 평소 범생이로 알려진 윤하와 사귀게 되고, 인도네시아에서 온 핫산이라는 사람을 통해 킥복싱을 시작한다. 운동을 시작한 후 세상에 대한 완득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져 가던 중 어머니를 만난다. 아들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는 어머니를 어색하게 대하던 완득의 말이 점점 반말로 바뀌며 두 사람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인다. 완득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어머니도 아버지와 화해한다.

##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현대 소설, 장편 소설, 성장 소설                                                                                        |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
| 배경 | 시대적: 현대 / 공간적: 도시 빈민가                                                                                      | 주제 | 한 소년의 갈등과 성장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바탕으로 사건을 전개함.</li> <li>• 주인공의 성숙 과정이 잘 드러남.</li> </ul> |    |              |

## 100점 특강

### 인물 간의 갈등

| 완득이 ↔ 이동주                                      | 완득이 ↔ 어머니                                             |
|------------------------------------------------|-------------------------------------------------------|
| 담임 이동주가 완득이의 생활을 간섭하면서 이를 귀찮게 여기는 완득이와 갈등을 빚음. |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는 완득이와 아들과 친해 지려는 어머니의 노력으로 인해 외적 갈등을 겪음. |

### 소재의 상징적 의미

|       |                                                                                                               |
|-------|---------------------------------------------------------------------------------------------------------------|
| 낡은 단화 | 어머니의 가난한 형편                                                                                                   |
| 하얀 봉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득: 어머니가 새 구두를 사 신기를 바라는 마음</li> <li>• 어머니: 아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li> </ul> |
| 킥복싱   | 완득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함.                                                                                             |

**줄거리** 눈 대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날은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를 끄는 김 침지에게 운수가 좋은 날이었다. 아침부터 연이어 사람들을 태우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된 김 침지는 집에서 앓고 있는 아내에게 설렁탕을 사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다가 오늘은 제발 나가지 말라고 애원하던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고는 계속되는 행운 속에서도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돈을 버는 재미와 불안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으로 일을 마친 김 침지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곧장 집에 가지 못하고 선술집에 간다. 그리고 아내가 죽었다며 울다가 거짓말이라고 말하면서 웃고, 돈을 집어던지는 등의 이상한 행동을 한다. 늦은 밤에 아내에게 줄 설렁탕을 사서 집에 들어온 김 침지는 누워서 반응이 없는 아내에게 욕을 하면서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른다. 결국 아내의 죽음을 확인한 김 침지는 눈물을 흘리며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이라고 중얼거린다.

##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시점 | 3인칭 전지적 시점 |
| 배경 | 시대적: 1920년대 / 공간적: 서울 빈민가                                                                                                  |    |            |
| 주제 | 일제 강점기 도시 빈민들의 비참한 삶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제 강점기의 도시 빈민들의 비참한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 줌.</li> <li>반어적인 제목을 사용하여 주제를 인상적으로 전달함.</li> </ul> |    |            |

## 100점 특강

### ■ 제목에 사용된 반어

|         |                          |
|---------|--------------------------|
| 제목      | 운수 좋은 날                  |
| 작품 속 상황 | 김 침지에게는 아내가 죽은 가장 슬픈 날임. |

▶ 김 침지의 처지와 반대되는 제목으로 주제를 인상적으로 전달함.

### ■ 배경과 소재의 역할

|                       |                                       |
|-----------------------|---------------------------------------|
| 눈 대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흐린 날 | ▶ 우울한 분위기를 형성하며 주제를 암시함.              |
| 설렁탕                   | ▶ 아내에 대한 김 침지의 사랑을 드러내며 소설의 비극성을 강조함. |

**줄거리** 일제 강점기 말, ‘나’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나’의 초등학교에는 유난히 키가 작고 머리는 크며 성격이 사나운 박 선생님과 키가 크고 순한 성품의 강 선생님이 있다. 박 선생님은 늘 일본말을 쓸 것을 주장하는데, ‘나’는 조선말을 쓰다 박 선생님께 벌을 받기도 하였다. 반면 강 선생님은 조선말을 써도 아무런 벌도 주지 않는다. 일본이 항복을 하자 박 선생님은 기가 죽었고 강 선생님은 박 선생님이 일본에 충성하던 모습을 강하게 비난한다. 그러다 강 선생님은 박 선생님에게 태극기를 만들어 함께 독립 만세를 부를 것을 제안하고 박 선생님이 이를 수락하자 둘 사이가 좋아진다. 그 후 박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일본이 조선을 빼앗은 이야기를 하며 조선이 훌륭한 나라라고 가르치는 한편, 미국말을 열심히 공부하여 미군이 오면 통역을 해 주며 그들을 돕는다. 그러나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되자 둘 사이는 다시 나빠지고, 얼마 후 강 선생님이 빨갱이로 몰려 교장에서 일 년 만에 쫓겨나면서 박 선생님이 교장이 된다. 박 선생님은 미국을 침미 마르도록 칭찬한다. 우리가 실수로 “미국놈”이라고 하면 엄한 벌을 주고 일본에 천황이 있듯이 미국에는 ‘돌맹이’라는 훌륭한 어른이 있다고 하며 미국을 추켜세운다.

##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현대 소설, 단편 소설, 풍자 소설                                                                                                                  | 시점 | 1인칭 관찰자 시점 |
| 배경 | 시대적: 일제 강점기~해방 후 / 공간적: 어느 초등학교                                                                                                      |    |            |
| 주제 | 기회주의적 삶의 태도에 대한 비판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진한 어린아이의 시선을 통해 부조리한 어른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려 냄.</li> <li>• 대중적인 성향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주제를 강조함.</li> </ul> |    |            |

## 100점 특강

### ■ 인물의 상징성

|                 |   |             |
|-----------------|---|-------------|
| 박 선생님           | ↔ | 강 선생님       |
| 기회주의적 태도를 지닌 인물 |   | 자주정신을 가진 인물 |

### ■ 풍자적 요소

|                                          |                                                |
|------------------------------------------|------------------------------------------------|
| 박 선생님의 외모                                | 뺨박이라 불릴 만큼 키도 작고, 머리는 크며, 눈은 부리부리하고, 매부리코에 메기입 |
| ↓                                        |                                                |
|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으면서 웃음을 자아냄. |                                                |

**줄거리** 열여섯 살인 '나(희창)'는 미옥에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알려 준 대로 편지를 써서 미옥에게 보낸 후 답장을 받는다. 들뜬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북한 말을 쓰는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가 '나'를 따라온다. 중국에서 온 그 남자는 우리 '일가'로 아버지의 사촌 형님이자 '나'의 당숙이었다. 첫인상이 좋지 않았던 아저씨는 며칠이 지나도 가지 않고, '나'와 어머니는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나'의 방에서 미옥의 편지를 발견하고 압수한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나'의 편지를 갈취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이 문제로 아버지와 크게 다툰 어머니는 집을 나간다. 어머니의 가출이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하던 아저씨는 어느 날 밤에 '나'에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해 준다. 다음 날 아침에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고 아저씨는 떠난다. 어느 날 '나'는 미옥이 아닌 아저씨의 외로움을 생각하며 울고 있음을 깨달으며, 자신이 이제는 어린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장 소설                                                                                                                      |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부분적으로 1인칭 관찰자 시점) |
| 배경 | 시대적: 현대 / 공간적: 어느 농촌 마을                                                                                                                  |    |                              |
| 주제 | 아픔을 겪으며 성장해 가는 청소년 / 일가의 의미가 퇴색한 현대 사회 비판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가 힘든 일을 겪으며 성장해 가는 과정이 드러남.</li> <li>• '나'가 관찰한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 현대 사회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함.</li> </ul> |    |                              |

## 100점 특강

### ■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나'의 변화



### ■ '아저씨'를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

|                                                                                        |         |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아저씨'</div> | '나(희창)' | 첫인상은 좋지 않았지만 점차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느낌.   |
|                                                                                        | 아버지     | 처음에는 잘 대해 주다가 점차 대접이 소홀해짐.        |
|                                                                                        | 어머니     | 불편하게 생각하다가 아버지와 다툼을 핑계 삼아 가출해 버림. |

• 동아, 지학사, 천재(노), 천재(박)

**줄거리** 강원도 정선 땅에 한 양반이 있었는데 글을 즐겨 읽고 덕이 높았다. 그러나 몹시 가난한 탓에 해마다 환곡을 빌려 갚지 못하여 큰 빚을 지게 되었다. 관찰사가 이 사실을 알고 옥에 가두라고 명하자, 양반은 대책 없이 울기만 했고 아내는 기가 막혀 ‘양반이 한 톨어치도 안 된다’고 남편을 비웃는다. 그때 그 마을의 부자가 이 소식을 듣고 빚을 대신 갚아 주고 양반 신분을 산다. 군수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부자가 양반이 되었음을 증서로 남기고자 한다. 증서의 내용은 양반이 지켜야 할 덕목을 열거한 것으로, 일찍 일어나 책을 읽고 배고픔이나 추위 등에도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참아야 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부자가 증서의 내용에 불만을 품자 군수가 증서를 고쳐 준다. 두 번째 증서에서는 양반은 진사만 해도 벼슬에 오를 수 있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이웃집 소를 마음대로 부리거나 일손을 부릴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부자는 어처구니없어하며 ‘도둑놈’이 되기 싫다며 달아나 버린다. 그 뒤로 부자는 평생 ‘양반’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고 한다.

##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고전 소설, 한문 단편 소설, 풍자 소설                                                                                                      | 시점 | 3인칭 전지적 시점 |
| 배경 | 시대적: 조선 후기 / 공간적: 강원도 정선                                                                                                    |    |            |
| 주제 | 양반들의 무능과 위선적인 삶에 대한 비판과 풍자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 후기 신분제가 동요하던 시대적 상황과 양반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함.</li> <li>실학이 추구하던 삶의 가치관이 드러남.</li> </ul> |    |            |

## 100점 특강

###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

- 평민 부자가 등장함.
- 돈을 주고 양반 신분을 사기도 함.

조선 후기 지배 계층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 의식이 싹트고, 동시에 부를 축적한 평민이나 중인 세력이 돈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여, 신분 질서가 혼란을 겪게 되던 조선 후기의 사회 상황을 반영함.

### 양반 매매 증서를 통해 비판하는 점

|         |            |   |            |
|---------|------------|---|------------|
| 첫 번째 증서 | 양반의 덕목과 의무 | → | 관념적, 허례허식  |
| 두 번째 증서 | 양반의 특권     | → | 부당한 수탈과 횡포 |

• 동아, 비상, 참비

**줄거리** 성 참판과 퇴기 월매 사이에서 태어난 춘향은 뛰어난 미모와 재주를 지니고 있었다. 어느 날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이 광한루에 구경 나왔다가 춘향이 그네를 타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날 밤 춘향의 집을 찾아가 춘향 모 월매에게 춘향과의 백년가약을 맺세한다. 그런데 몽룡의 아버지가 서울로 가게 되어 둘은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게 된다. 몽룡은 다시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춘향은 몽룡이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기다린다. 새로 사또로 부임한 변학도는 춘향에게 수청 들 것을 강요한다. 춘향은 죽음을 무릅쓰고 정절을 지키려 하고, 이로 인해 하옥된다. 한편 몽룡은 과거에 급제하여 전라도 암행어사가 되어 내려온다. 몽룡이 거지꼴로 변장하여 춘향의 집을 찾아가니 월매가 푸대접하고, 옥중의 춘향은 절망에 빠진다. 몽룡은 변 사또의 생일잔치 때 각 읍 수령이 모인 틈을 타 어사출두를 단행한다. 어사또는 변 사또를 파직하고 벌을 준 후, 춘향과 재회한다. 그 후 어사또는 춘향을 데리고 상경하여 부부로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고전 소설, 한글 소설, 판소리계 소설                                                                                                                     | 시점 | 3인칭 전지적 시점  |
| 배경 | 시대적: 조선 후기 / 공간적: 전라도 남원                                                                                                                  | 주제 |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학과 풍자를 바탕으로 뛰어난 문학성을 달성함.</li> <li>• 판소리의 영향으로 운문체와 산문체가 혼합되고, 서술자가 사건에 개입하는 부분이 많음.</li> </ul> |    |             |

## 100점 특강

### 작품에 반영된 사상

| 인간 평등              | 사회 개혁                 | 자유연애        | 정절 중시         |
|--------------------|-----------------------|-------------|---------------|
| 신분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의 실현 | 탐관오리의 횡포 등 부조리에 대한 항거 | 남녀의 자유로운 사랑 | 여성의 지조와 정절 예찬 |

### 「춘향전」의 형성과 전승 과정

|       |        |         |     |
|-------|--------|---------|-----|
| 설화    | 판소리 사설 | 판소리계 소설 | 신소설 |
| 열녀 설화 | 춘향가    | 춘향전     | 옥중화 |

**줄거리** 조선 세종 때 홍 판서에게는 세 부인이 있었는데, 정실부인에게서 인형을 낳고, 시비 춘섭에게서 길동을 낳았으며, 초란에게서는 소생이 없었다. 길동이 영리하여 홍 판서의 사랑을 받아 초란이 이를 시기하여 무너를 불러 길동을 없앨 것을 모의한다. 초란이 길동을 죽이기 위해 특재라는 자객을 보내는데, 길동은 도술로 이를 물리치고는 부친과 어머니께 작별을 고하고 출가한다. 길동은 집을 나와 떠돌다가 산중 도적의 소굴에 들어가 활빈당을 조직하고 전국의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 조정에서는 이를 알고 홍길동을 잡아들이라 하나 둔갑술을 부려 팔도에서 여덟 명의 가짜 길동이 잡힌다. 왕은 결국 길동을 달래기 위해 병조판서의 벼슬을 내리는데 길동은 왕 앞에 찾아와 절하고 조선을 떠난다. 이후 길동은 울도국에 들어가 왕이 되어 이상적인 나라를 세워 다스린다.

##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고전 소설, 한글 소설, 사회 소설                                                                                                              | 시점 | 3인칭 전지적 시점         |
| 배경 | 시대적: 조선 세종 / 공간적: 조선, 울도국                                                                                                        | 주제 | 적서 차별 제도 비판과 사회 개혁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비현실적 요소가 드러나 있음.</li> <li>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 의식을 바탕에 두고 있음.</li> </ul> |    |                    |

## 100점 특강

### 「홍길동전」의 영웅 일대기 구조

|                  |   |                      |
|------------------|---|----------------------|
| 고귀한 혈통           | ▶ | 판서의 아들로, 용공을 꾸고 잉태됨. |
| 비범한 능력           | ▶ | 총명하고 도술에 능함.         |
| 어려서 위기를 겪음.      | ▶ | 초란의 음모로 위험에 빠짐.      |
| 조력자를 만나 위기를 벗어남. | ▶ | 도술을 부려 자객을 죽임.       |
| 자라서 다시 큰 위기를 만남. | ▶ | 활빈당으로 인해 조정에서 잡으려 함. |
| 위기를 극복하고 영웅이 됨.  | ▶ | 벼슬을 거절하고 울도국의 왕이 됨.  |

###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배경과 창작 의도

|                             |   |                                                  |
|-----------------------------|---|--------------------------------------------------|
| 적서 차별 제도(서자는 관직에 진출할 수 없음.) | → |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이를 개혁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음. |
| 관료 사회의 횡포(지배층이 백성들을 수탈함.)   |   |                                                  |



• 미래엔, 천재(노)

**줄거리**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 지역에 사납고 못된 형 놀부와 순하고 착한 아우 홍부가 살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놀부는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하고 동생 홍부를 집에서 쫓아낸다. 홍부는 아내와 많은 자식들과 함께 초라한 움집을 짓고 살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 고생을 한다. 한번은 놀부의 집으로 쌀을 구하러 갔다가 매만 맛고 돌아온다. 품팔이를 하고 매품팔이까지 했지만 여전히 먹고살기가 힘들었다. 어느 봄 홍부네 집에 제비가 찾아와 집을 짓고 새끼를 낳았는데, 그중 한 마리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다. 홍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 주었는데 이듬해 그 제비가 박씨 하나를 물어다 준다. 홍부가 박씨를 심어 가을에 박을 타니 그 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와 홍부는 큰 부자가 된다. 놀부가 이 소식을 듣고 제비 새끼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 치료해 날려 보낸다. 이듬해 제비가 역시 박씨를 물고 와 놀부가 박을 따게 되는데 그 속에서 도깨비 등이 나와서 결국 놀부는 망하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홍부는 형 놀부에게 재산을 나눠 주고, 놀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홍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간다.

## 핵심 정리

|    |                                                                                                                                           |    |            |
|----|-------------------------------------------------------------------------------------------------------------------------------------------|----|------------|
| 갈래 | 고전 소설, 한글 소설, 판소리계 소설                                                                                                                     | 시점 | 3인칭 전지적 시점 |
| 배경 | 시대적: 조선 후기 / 공간적: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 지역                                                                                                         |    |            |
| 주제 |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    |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판소리 사설을 바탕으로 정착되어 운문체와 산문체가 혼합됨.</li> <li>대조적인 인물 묘사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해학적인 표현을 통해 웃음을 유발함.</li> </ul> |    |            |

## 100점 특강

### 인물의 대조적 특성

| 홍부                                                                               | ↔ | 놀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난하지만 선량함.</li> <li>현실적으로 무능함.</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유하지만 인정이 없음.</li> <li>욕심이 많음.</li> </ul> |

### 「홍부전」의 형성과 전승 과정

|       |        |         |      |
|-------|--------|---------|------|
| 설화    | 판소리 사설 | 판소리계 소설 | 신소설  |
| 방이 설화 | 홍보가    | 홍부전     | 연의 각 |